

〈 調查報告 〉

旌 義 高 을 (1)

金 榮 敦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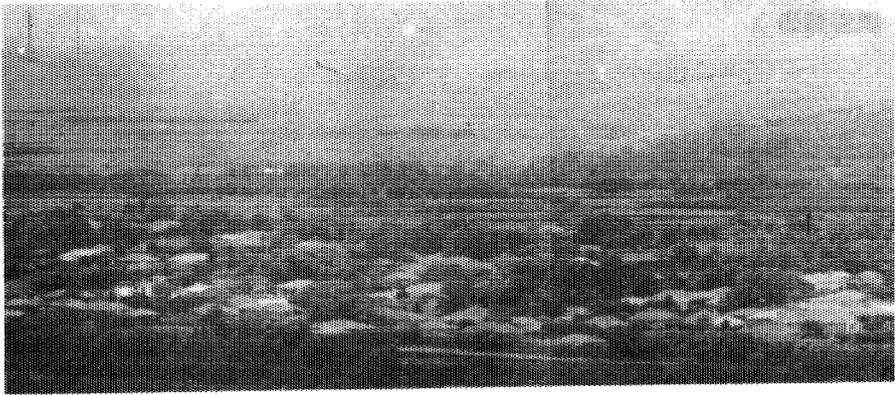
目 次	
I . 머리말	VI . 住民 및 家族構造
II . 略 史	VII . 生業 · 經濟
III . 縣廳所在地로서의 施設 · 遺物	VIII . 歲時風俗
IV . 傳承文化	IX . 通過儀禮
V . 社 會	X . 參考資料

I . 머 리 말

이 글은 필자가 文化財管理局의 의뢰에 따라 조사, 보고했던 <旌義고을>(民俗資料 保護区域 調查報告書 第 55 號, 1973 年 12 月)이다. 旌義고을은 14 23 年(世宗 5 年)~1913 年, 5 세기 동안 旌義縣의 所在地였던, 지금의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를 말한다.

민요를 비롯한 민속 조사를 위하여, 필자는 이 城邑을 1950 년대부터 무수히 드나들었는데, 특히 <旌義고을> 조사보고를 실시했던 1973 年 한 해 동안은 연 45 일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해 7·8 월 여름방학에는 濟州大 文化財研究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旌義고을全景

會 姜榮鍾 등 7명의 학생들이 10여일씩 투숙하면서 설문지를 들고 家口全數에 대한 조사도 두 차례나 실시하였으며, 마을 全家口의 家屋配置와 지붕구조 일람은 朴成鍾(現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研究員)에 따라 작성된 바 있다.

사회의 급격한 改變에 따라 傳來的 生活文化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에 대비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城邑里를 포함한 전국의 다섯 마을을 골라 民俗資料保護區域으로 지정하려는 의도에서 이 조사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民俗資料保護區域(民俗村) 指定保存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행정당국과 주민 사이에 합의된 바 確定된 방안이 아직 안 있다. 그 方案이 空轉되는 가운데 1976년 12월, 필자는 제주도의 의뢰에 따라 <民俗村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村落概要 및 保存方向>을 낸 바 있고, 1978년 11월, 金鍾植에 따라서는 <民俗村指定保存對象地域調査報告書>(濟州道)를 내었으니 여기에서는 家屋構造 및 住生活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 保存方向과 開發計劃을 제시하기도 했다. 民俗村 指定을 위한 조사, 보고라는 성격을 떠나서도 이 보고는 住生活 考究資料로서, 필자의 <旌義고을>은 民族誌的 接近으로서 그 나름의 뜻을 지닌다. 또한 濟州大 國語教育科에서는 이 마을에서 1977년 여름,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學術調査報告 第6輯: 城邑里學術調査>를 낸 바 있다. 23명(교수 5명, 학생 18명)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 학술조사는 1972년부터 연계적으로 실시되는 여섯번째의 뜻 있는 작업이었다. 이어 城邑里를 중심한 徐庚林의 <濟州民俗의 觀光資源化方案>(제주대학 논문집 제 10집, 인문·사회과학편,



旌義고을全圖

1979)이란 논문도 드러나면서 관광개발을 둘러싼 論議도 活性化되어 갔다.

필자는 20수년간 이 마을을 드나들다 보니 그 골목골목마다 익숙어지고 주민들 얼굴마다 정다와져서 고향 같은 다사모움과 愛情이 일었다. 한결같이 다사롭게 대해 주시는 宋之後鎭과는 어버이 같은 의리도 생겼다. 필자는 무계가 있던 없든 모처럼의 《旌義고을》을 재조사, 보완해서 단행본으로 꾸밀 생각을 해 보지마는 다른 일에 시달려 미루다 보니 벌써 10년이 흘렀다. 1976년 대만·일본을 돌다가 대판에서 在日城邑里親睦會 金鍾熙會長과도 그 출판을 의논한 바 있었지만은 게으른 탓으로 그러저럭 미루어 온다. 보완하지도 못한 채 그 조사보고서 그대로를 내보이는 점 석 점연적지만, 문화재관리국의 《旌義고을》이 한점 부수였으며 구할 길 없는대로, 앞으로 深層的으로 조사하려는 이들에게나 旌義고을을 알리는 이들에게 자그만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II. 略 史

城邑은 濟州道 南濟州郡 表善面에 속해 있는 山間村落의 하나다. 四面環海의 제주도는 원래가 타원형인데 湧泉水의 거리가 海岸에 분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聚落의 약 4분의 3이 海岸線을 뱅 둘러가며 形成되어 있어서 바닷가와 무려 8km나 山間으로 떨어져 올라간 城邑과 같은 山間 마을은 드문 편이다. 이 山間 마을인 城邑은 朝鮮朝初에서 約 5世紀間 旌義縣의 都邑地였다.

- 本濟州東道本朝太宗十六年丙申用安撫使吳湜之啓折漢孛山南幅員二百餘里之地東爲旌義西爲大靜俱設縣置監(李元鎮《耽羅志》旌義縣建置沿革條)

곧, 제주도는 朝鮮朝 太宗 16年(서기 1416年) 安撫使 吳湜의 建議에 따라 漢孛山을 가운데 두고 대체로 지금의 濟州市와 北濟州郡을 합친 山北은(그 境界는 물론 相違함이 있으나) 濟州牧으로 하고 漢孛山南은 兩分하여 東은 旌義縣, 西는 大靜縣으로 三分 統治하기 시작했다. 서기 1914년에야 旌義·大靜二郡을 廢止하여 濟州郡에 合併하였으니 三縣分立統治期間은 무려 498년간이나 된다.

當初 旌義縣의 都邑地는 城山面 古城이었다. 그런데 古城은 地理的으로 日本과 近接해 있으므로 倭敵의 侵略이 도내 어느 곳보다도 심해서 서기 1423년(世宗 5年) 都邑地를 城邑里로 옮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7년만에 旌義縣廳 所在地는 古城에서 城邑으로 옮겨졌다.

- 古旌義縣 在縣東二十七里元牧子哈赤殺本州萬戶于此吳湜分三邑時因置縣地近牛島晨昏鼓角大風屢作禾稼不登倭賊迭侵我 世宗五年安撫使鄭幹建議以開移縣于晉舍郎今治也(李元鎮《耽羅志》旌義縣古跡條, 朝鮮實輿勝覽)

서기 1864년(高宗 원년) 8월, 旌義縣과 大靜縣을 昇格하여 郡守를 두게 했는가 하면 濟州牧의 管轄에서 벗어나 直接 全羅道 觀察使의 管轄 밑에 두었다. 이처럼 旌義, 大靜縣에 邊地郡守를 두고 보니 제주도의 특수한 地政學的 사정으로 말미암아 濟州牧과 兩郡間에 體統이 紊亂하여 行政上 불편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서기 1880년(高宗 17년) 2월에는 兩邑을 다시 縣으로 還元하고 舊例대로 縣監을 두게 했다. 서기 1895년(高宗 32년)에는 地方制度 개편에 따라 濟州를 府로 고쳤으며 牧使를 觀察使로 바꾸었는가 하면, 判官制度를 參事官制度로 고쳐 郡守를 겸하게 하였으며 警務廳도 新設하였다.

서기 1906년(光武 10년)에는 서기 1896년(高宗 33년)에 부활했던 牧使制度를 廢止, 郡守를 두었으며 서기 1914년에는 旌義·大靜의 二郡을 폐지하여 濟州郡에 合併시켰다. 서기 1423년(世宗 5年) 이후 약 5세기간, 旌義縣의 都邑地로 행세하던 城邑 역시 縣廳所在地로서의 終焉을 고하게 됐다.

서기 1915년 5월 1일을 기하여 濟州郡 制度가 廢止되고 島制가 實施되었다. 初代 濟州島司로 日人 今村靉이 부임하였고, 지금의 表善面은 東中面이라 稱하게 되었다. (원래는 中面の 일부인데 그후 分面에 의하여 松川以東 川尾川以西를 東中面이라 하게 됐다.) 城邑里는 表善面の 平凡한 1個里면서 단지 面所在地일 정도로 轉落했다. 西紀 1935년 東中面은 表善面으로 改稱하게 되었으며 1946년 郡制實施에 따라 南濟州郡 治下에 속하게 되었는데 5世紀間 長久한 세월을 縣廳所在地로서 繁華를 띤 城邑은 縣制 廢止 후에도 面事務所 所在地로서의 命脈은 유지해 왔었으나 서기 1934년 面事務所마저 表善으로 옮겨짐에 따라 城邑은 斜陽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Ⅲ. 縣廳所在地로서의 施設·遺物

1. 縣官署와 鄉校

城邑은 地理, 歷史, 社會, 經濟, 生業, 習俗, 文化가 특이한 제주도의 山間村落이라는 特異性 위에 5世紀間 縣廳所在地로서의 特性이 接木되었다는 점에서 民俗保護村落으로서의 價値를 지닌다. 前述한 바와 같이 서기 1423년(世宗 5년)에 倭敵의 侵奪이 극심하므로 城山面 古城이 郡邑으로서는 不適하다 해서 城邑里로 옮겨졌는데 그 해에 郡邑을 城邑으로 정했던 安撫使 鄭幹이 旌義縣城을 構築했다.

旌義縣城을 포함해서 三州縣廳 所在地에는 각각 州縣城이 있었다. 旌義縣城의 자취는 아직도 그 殘痕이 더러 남아 있는데 원래는 周廻가 2,986尺, 높이 13尺이었다 한다. 기록에 따르면 東西南 三門이 있었으며 城中에 우물 두 군데가 있었으나 生水가 아니므로 가뭄에는 城南쪽 2리 밖에 있는 大川水를 길어 먹었다 한다.(淡水契編 《耽羅志》 pp.164~165) 500년간 郡邑地로서 縣官署址에 대해서는 아직도 古老들 사이에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 우선 李元鎮牧使의 《耽羅志》 ‘旌義縣 宮室條’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客館東軒
- 衙 在客館北



日觀軒(旌義縣廳, 地方有形文化財 第7號)

- 官廳 在衙南
- 鄉所廳 在客館西座首一人別監二人
- 出身廳 時數五人
- 武學廳 時數三十三人已上二廳附鄉所廳
- 作廳 在衙東記官書員持印同接焉

樓亭으로서는 南城門樓인 <新樓>가 있었으며, 東軒 뒤엔 있었던 <山亭>에
는 射場이 있었다. 東城에는 <東門樓>, 西城에는 <西門樓>가 있었으며 世
宗時 靈泉川 西岸에는 교통과 연락의 편의를 위하여 國立旅館格인 <靈泉館>
이 있었다.

- 靈泉館 在靈泉川西岸與靈泉寺東西相對節制使李由義建 三邑相距阻隔無驛
院故東西行客皆經宿于濟州月溪寺水精寺朝天窟金寧所大靜法華寺及此館又節
制使春秋點馬時作場處今廢(李元鎮《耽羅志》旌義縣 樓亭條)

世宗 때 交通과 相互行政連絡의 필요에 따라 島內各地에 站과 院을 두었으며 本土出入關門地인 全羅道 海南에는 海珍城館을 두었는데 世朝時에 設置했던 이 <靈泉館>은 바로 이런 類였다. 이 외로 지금 城邑國民學校 터에는 <耽羅東館>이 있었으며, 北城內에는 縣監政堂인 <日觀軒>이 있었으니 이것은 서기 1443년(世宗 25년) 縣監 宋漣이 創建했던 것이다. 이 <日觀軒> 동쪽에는 <軍官廳>이 있었다. 그리고 <日觀軒>서남쪽에 <待變廳>이 있었으며 서기 1907년(隆熙 원년) 郡守 張容堅이 私立義明學校를 創設했던 자리에는 <鄉社堂>이 있었다. 서기 1738년(英祖 14년)에 縣監 羅億吟이 創建했었다는 <日觀軒>西南쪽의 <縣司>는 戶長所屬處였다. 北城上에는 서기 1830년(純祖 30년) 縣監 朴宗默이 創建한 바 <倚斗亭>이 있었으며 서기 1738년(英祖 14년)에 縣監 羅億吟이 創建했었다는 <洗兵亭>은 南城外에 있었다 한다. 縣監 尹華奂이 飢民을 賑恤한 備穀 500石으로 지었다는 <補民倉>은 <賑恤倉> 곁에 있었다 한다.

<鄉校>는 濟州와 大靜고을과 더불어 旌義고을에도 세워져서 玩傳하는 바 旌義의 <大成殿>은 서기 1423년(世宗 5년) 縣廳所在地를 城山面 古城里로부터 城邑里(當時 晉솔里)로 옮길 때 創建된 것이다. 그후 서기 1809년(純祖 9년) 縣監 呂哲求가 西城內로부터 同里 化原洞에 移建하였고, 1849년(憲宗 15년)에 牧使 張寅植이 啓請하여 城內로 移建하였다. 아울러 <明倫堂>은 서기 1738년(英祖 14년) 縣監 羅億吟이 지었다. 李元鎮牧使의 <<耽羅志>>에는 그 學校條에 <鄉校>에 대하여 “在縣西城內校生時數六十六人”이라 기록되어 있다. 明倫堂 南側의 <書堂>은 서기 1778년(正祖 2년)에 牧使 黃最彥이 創建하여 많은 書生을 키워냈다.

이 외로 당시 고을로서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機構, 施設을 李元鎮의 <<耽羅志>>에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倉庫

司倉 在縣城內時留庫雜穀一千四百九石零

軍器庫 在客館東

○ 鄉約

約正 一人

直月 東西各一人 五面有捕盜將各一人

○ 祠廟

社稷壇 在縣西四里

城隍祠 在縣北三里

厲壇 在縣北四里

文廟 在鄉校

○ 將官

哨官 二人

○ 軍兵

騎兵, 步兵, 水軍, 雜色軍, 差備軍, 東伍

○ 奴婢

官奴婢 時數五十一口

各司奴婢 時數一千五百六十五口

校奴婢 時數十六口

縣官署로서 아직까지 民間들 사이에서 기억되는 바 官署址를 宋之俊翁(男·75) 등에게서 문의하여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A. 縣廳 ~ 城邑里事務所 옆
- B. 都廳 ~ 城邑里 813 番地 玄奉彦宅
- C. 寮邊廳 ~ 城邑里 819 番地 金仁植宅
- D. 使令廳 ~ 城邑里 809 ~ 2 番地 金斗珍宅
- E. 質廳 ~ 城邑里 882 ~ 1 番地 金已生宅
- F. 馬房터 ~ 城邑里 572 番地 梁文圭宅
- G. 과상청 ~ 城邑里 808 番地 洪潭斗宅
- H. 武學廳 ~ 城邑里 818 番地 尹珍善宅
- I. 獄터 ~ 城邑里 572 番地 梁文圭宅 東側(玄奉圭 所有)
- J. 軍器터 ~ 城邑國民學校

- K. 客舍 ~ 城邑國民學校
 L. 倉房 ~ 城邑里 892 番地 玄文男宅
 M. 鄉廳 ~ 城邑里 868 番地 宋智雄宅
 城邑里 869 ~ 871 番地 宋利根宅
 N. 縣司 ~ 城邑里 846 番地 洪南承宅
 O. 教練廳 ~ 城邑里 826 番地 洪己得宅

이 縣官署들은 지금 모두 毀破되어서 元貌를 詳考할 길이 전혀 없다. 里事務所 옆 縣廳만이 함석 지붕에 시멘트로 壁을 改築하기는 했으나 기둥 등 原材가 을씨년스레 남아 있을 뿐이다. 옛 官署들은 모두가 民家로 바뀌어졌으며 대체로 道路邊에 위치했었으므로 政府에서 강력히 推進하는 새마을 운동의 一環으로 지붕 改良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굳이 옛 官署로서의 회미한 殘痕이라도 찾아 보면 길쭉한 돌기둥(흔히 圓筒形)이 울타리 돌담 속에 섞여 있는 경우를 볼 정도다. 아직 元貌를 고스란히 살펴 볼 수 있는 建物は 唯一히 <鄉校>다. 前述한 바와 마찬가지로 <旌義鄉校>는 縣廳所在地를 城山面 古城里로부터 이곳 城邑里로 옮길 때, 말하자면 서기 1423년에 創建된 것이다. 近間 鄉校의 祭享, 祭享費 據出 등 그 實態를 잠깐 살펴 보기로 한다. 日政時에는 孔子誕日을 기해서 祭享은 年 1회만 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統制에 따라 日政時 몇해 동안은 孔子誕日에만 그것도 대낮에 年 1회만 奉祭했었다. 解放이 되자 이런 구속에서 풀렸을 것은 물론이다. 2月初丁, 8月初丁에 奉祭하며 孔子誕日에 奉祭한다. 慕聖觀念이 드높았을 때에는 舊旌義縣內 각처에서 몰려와서 아주 盛大한 祭享을 行했는데 역시 日政直前까지가 熱烈했었다. 특히 解放後에는 祭享費가 마련되지 않아서 각 典校들의 고충이 말 아니었다. 원래 旌義鄉校의 財産은 대단한 것이었다. 城山浦 一円, 舊左面 下道, 中文面 河源 등의 莫大한 田地가 그 財源이었는데 普通學校 建立時 그 建立費로 全財産을 賣却해 버렸다는 것이다. 舊韓末에만 해도 財産賣却 後로는 祭享費 조달은 언제나 難題여서 郡守가 직접 典校帖紙·掌議帖紙·訓長帖紙 등을 발행해서 祭享費를 간신히 조달해 나갔던 터였다. 이 제도는 日政時代를 거쳐 解放 후에도 시행해 왔는데 軍색한 彌縫策이었을 것은 말할 것 없다. 오늘

날에 와서는 뜻 있는 분들, 在日僑胞 등의 快擲金에 의하여 조달하는 형편이다. 71년도에는 당시 典校 鄭漢應(南元出身)이 渡日하여 僑胞들에게서 280 만원을 회사받고 와서 鄉校를 수리하기도 했다. 지금 典校 梁奉怡(南元面新禮出身)은 恒久的인 維持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儒道會를 再整備強化하고 회원들에게서 年會費(年 200원)를 징수 확보하고 있다.

2. 州縣城石像(돌하르방·벽수머리·무성목)

縣廳所在地로서의 城邑의 主要 遺物로 州縣城石像 12基가 있다. 州縣廳所在地였던 도내 세 地點에 남겨진 이 石像은 도합 47基다. 이 47基에 대한 調査報告는 필자의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50號 《濟州島의 石像, 石具》(文化財管理局, 1968.12.)에서 位置와 規格, 名稱, 機能, 歷史的 由來 등에 대하여 다룬 바 있다.

여기에서는 旌義縣城 石像에 관한 것만을 요약하여 살펴 보겠다. 旌義縣城 石像의 現位置는 다음과 같다.

- (1) 東門址 北側 路邊(外)
- (2) 東門址 南側 路邊(外)
- (3) 東門址 南側 路邊(內)
- (4) 東門址 北側 路邊(內)
- (5) 南門址 東側 路邊
- (6) 南門址 西側 路邊
- (7) 南門址 옆 表路으로 가는 길 東側 路邊
- (8) 南門址 西側 路邊
- (9) 西門址 南側 路邊(內)
- (10) 西門址 北側 路邊(內)
- (11) 西門址 南側 路邊(外)
- (12) 西門址 北側 路邊(外)

원래 旌義縣城 石像이 몇基였는지 詳考할 길은 전혀 없다. 古老들에게 물으면 어렸을 때부터 12基를 보았으며, 예전부터 12基였다고 전해진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12基가 확실하다면, 東西南門 앞 壘城굽이에 한쪽에 2基씩 서로 마주하여 서 있었다는 말이 되며 旌義縣 石像의 경우는 거의가 原位置에 아직도 놓여 있다는 말이 된다. 이 石像들이 원래 州縣城 城門 앞에 세워졌으리라는 推斷의 근거를 필자는 다음 네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前掲報告書, p.9)

1. 旌義縣城・大靜縣城의 石像들이 東西南 三門 앞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점.

2. 濟州市의 경우도 三門 앞에 세워진 것으로 65년전쯤 直接 目擊한 일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南門 밖에 세워던 石像을 三姓祠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분이 있다는 점.

3. 濟州市 東門 밖에 있었던 8基의 자리를 자세히 보면 城 밖 壘城굽이에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4. 淡水契編 《耽羅志》(p.82)에 “……城 東西南 三門 外에 在하였고……云云”의 기록이 보이는가 하면 各城門 밖에 세워졌었다고 보아야만 事理에 合致할 수 있다는 점.

三州縣城 石像들이 각 城門 바깥에 세워졌었다는 게 분명하다면, 지금까지 그래도 原位置 가까이 놓여져 있는 경우가 城邑의 것이라 할 수 있다. 旌義縣城 石像의 規格 平均은 다음과 같다.

- 전체 길이 : 141.4 cm
- 안면 길이 : 65.9 cm
- 안면 둘레 : 148.5 cm
- 가슴 둘레 : 169.7 cm
- 김투전 나비: 4.8 cm
- 김투 둘레 : 138.4 cm
- 基石 높이 : 30.3 cm
- 基石 둘레 : 220.6 cm

여기 基石은 12基中 8基만이 있고 8基의 基石도 원래의 基石인지의 與否

는 確證할 길이 없다.

三州縣城의 石像의 印象이나 規格은 各各 다르다. 一見하여 곧 識別할 수 있을 만큼 濟州의 것이 그래도 絶作이고 旌義·大靜 것은 좀 拙作이다. 참고로 三州縣城 石像의 規格 平均對比表를 제시한다.

〈表 3-1〉 濟州·旌義·大靜 三州縣城 石像 規格對比

石 像 別 区 分	단위 : cm		
	濟州牧城 石像 平均	旌義縣城 石像 平均	大靜縣城 石像 平均
전체 길이	181.6	141.4	136.2
안면길이 *	89.0	65.9	66.5
안면둘레 **	149.1	148.5	147.8
가슴둘레 ***	196.6	169.7	171.2
김투전 나비	11.1	4.8	6.2
김투 둘레	157.2	138.4	153.7
基石 높이	42.2	30.3	
基石 둘레	322.6	2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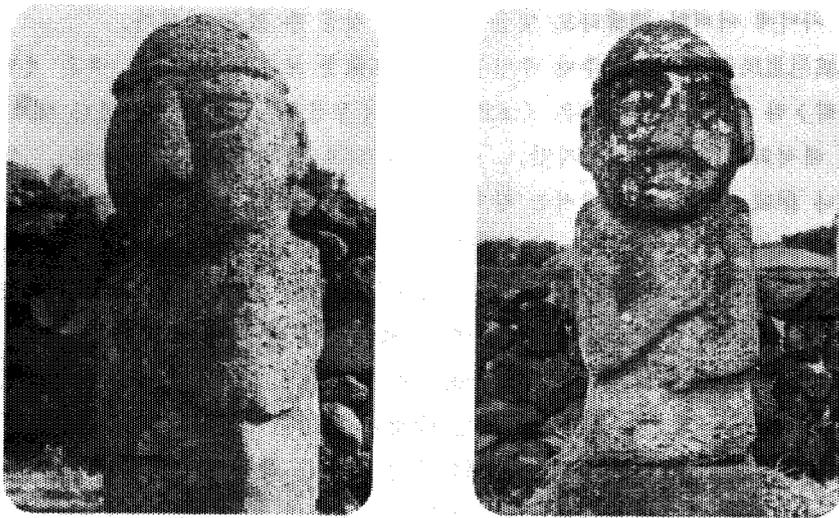
* 「안면 길이」는 머리에서 턱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안면 둘레」는 顔面에서 코를 둘러서 가장 넓은 부분을 말한다.

*** 「가슴 둘레」는 양팔을 포함해서 재었다.

州縣城 石像의 規格對比表를 보면서 旌義縣城 石像을 기준하면 다음 사실을 요약해낼 수 있다.

- 전체 길이……濟州牧城의 石像이 가장 크고 旌義縣城의 것은 大靜縣의 것보다 조금 크다.
- 안면 길이……濟州牧城의 石像이 아주 크고 旌義·大靜 것은 비슷하다.
- 안면 둘레……三州縣城의 것이 비슷비슷하다.
- 가슴 둘레……濟州牧城의 것이 他二縣의 것에 비하여 훨씬 길다.



돌하르방 (역수머리)

- 감투전의 나비……旌義의 것은 大靜石像과 더불어 濟州石像의 半이 못된다.
- 감투 들레……旌義의 것이 가장 적다.

다음 旌義縣城 石像의 印象을 살펴 보자. 얼굴 인상은 円形이며 溫厚하게 보이는가 하면, 눈은 濟州牧 石像에 비하여 별로 뚜렷하질 못하며 눈섭이 없다. 코는 뾰족하고 날카로우며 端正하다. 입 역시 端正하기만 할 뿐, 별로 威嚴이 없으며 가슴 筋肉은 아예 없다. 귀는 나뭇죽하고 앞전할 뿐이며 비교적 높직한 감투가 씌워졌으나 감투전이 너무 가느다랗다. 他二州縣처럼 旌義縣 石像의 두 손은 한결같이 앞 배에 얹혀 놓았는데 旌義의 것중에는 가끔 다섯 손가락이 분명히 조각돼 있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濟州牧의 것은 대체로 한쪽 어깨를 으쓱 치켜올린 모습이지만 旌義는 大靜과 마찬가지로 양어깨가 가지런하여 좀 멋없다.

三州縣城의 石像들은 제작기 個性이 짙다. 역시 濟州牧의 것이 이모저모로 逸品이요, 다음은 旌義縣의 것이겠는데 濟州牧 것만은 못하지만, 그런대로 端正, 溫厚한 편이면서 愛嬌는 있다. 이런 特異한 印象과 舊旌義縣民의 氣質과

의 사이에 어떠한 連繫라도 맺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

城邑里民들 내지 그 주변 주민들은 이 石像을 보고 <무성목> 혹은 <벽수 머리>라 한다. 宋之俊翁은 <武儂木>이 <무성목>으로 바꾸어졌다 했고 그리 해석하는 古老들도 많지만, 수긍되질 않고 얼른 밝힐 길이 없다. 濟州市나 保城·仁城·安城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명칭으로서 <벽수머리>란 말이 城邑住民들 새에서는 흔히 쓰인다. 이것은 <벽수>에다 <머리>가 덧붙여진 合成語일 터이며, 本土 南部地方에서 長柱을 대체로 <벽수>라 하는데 이에서 유래된 말인 듯하다. 이 石像의 機能은 ①境界 標示 및 禁標로서의 機能, ②守護神으로서의 機能, ③呪術宗教的 機能, 이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本土의 長柱과 비슷한 機能과 本質을 지닌 것인 듯하다.

이 石像의 由來에 대해선 三州縣城의 것 모두를 통틀어 그렇다할 確證을 잡을 길이 없다. 다만 淡水契編 <耽羅志>에 따르면 서기 1754년(英祖 30년)에 牧使 金夢奎가 刱建했다고 記錄되어 있을 뿐, 다른 어떠한 記錄도 傳承도 찾을 길이 없으니 確言할 길이 없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濟州島の 石像·石具》(文化財管理局, 1968) 및 이를 간추린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文化人類學 제 5집, 1972)을 참고하기 바란다.)

IV. 傳承文化

1. 民間信仰

傳承의 生活文化 가운데 우선 民間信仰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18 개소에 이르는 巫俗信仰處 가운데서 <높은당>·<낮은당>·<안할망당>·<광주부인당>·<일뤼당>·<개당>·<취당>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안할망당>·<광주부인당>·<일뤼당>·<개당>은 아직도 殘存해 있고 나머지는 毀撤되었다. <자니 마르>지경에 있는 <높은당>은 <耽羅志> 등에도 기록되어 있는 社稷壇이어서 社稷祭도 公的으로 지냈던 公共祭壇이었던

데 成旌義의 아들인 成南生이 精神異常을 일으켜 이를 燒却해 버렸다는 것이다.

가장 중심되는 本鄕堂인 <안할망당>은 서기 1971년도 里事務所를 新築하게 됨에 따라 그 敷地에 接하게 되자, <팽나무> 밑등에 陳設되었던 堂을 그 바로 西側 돌담너머 집구석에 2坪쯤의 스테이트집을 짓고 移設하였다. 出入口門을 열면 시멘트 壇 위에 木造 神壇이 놓여 있는데, 가운데는 <縣海守護神之位>란 位牌가 서 있으며 位牌左側에는 有色 형깃들과 구슬목걸이가 걸려 있고 位牌右側에는 옷감·有色 형깃들과 紙錢이 걸려 있으며 位牌 밑에는 비너한개가 놓여 있었다. 그 木造神壇 위에는 다음과 같은 說明文이 세워져 있다.

○李朝世宗五年 本晉舍村에 旌義邑地로 設定하니 初代縣監이 縣守護神으로 仰奠, 官民一致 奉安하다.

辛亥年 三月 日

移設

이 <안할망당>의 <안할망>은 全城邑住民의 身數, 健康 등을 總括한다고 전해 온다. 科擧나 商賈로 出陸하려 하거나 訴訟事件이 생길 때, 근래에는 子弟가 出征해 있을 경우, 모두 이 <안할망>이 管掌한다고 이 <안할망당>을 찾아든다. 실령 무사하더라도 家庭의 無恙을 위하여 舊曆年初마다 각가정에서는 부인들이 찾아가 致誠드린다. 이 <안할망당> 西側 洪太五氏집 울타리에는 <光州夫人堂>이 있었다. 부인들의 婦人病 내지 母乳 등을 管掌한다는 機能이 있어 婦人病이 있거나 分娩後 產母의 母乳가 如意치 않을 때 부인들이 찾아들었다.

예전에 한 縣監이 이 고을을 다스리러 本土에서 到任해 왔다. 人德이 있고 원만한 분이어서 善政을 베풀었으므로 旌義縣民들은 太平盛世를 누리게 되었다. 다만 縣監夫人이 정체 모를 病患으로 시름시름 앓는 게 고을 백성들로서도 커다란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百方으로 施藥治療해 보았으나 病患은 점점 重態로 빠져들 뿐 莫無可奈였다. 縣監夫人은 이 고을로 오면서 光州胎生의 誠實한 侍女 한분을 데리고 왔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안타까와한 분은 그 侍女였다. 치료가망이 전혀 없게 되어가자 그 侍女는 縣監夫人의 病治療를 祈願하는 一念으로 縣監夫人 대신 殉死했다. 너무나 거룩하게 殉死했으므로 그 靈



느티나무(天然紀念物 第161號)

魂은 堂神이 되고 婦人病을 管掌하는 神格으로 化했다는 傳承이 있다.

마을 郊外로 석 떨어진 동산에 酬祭 祭壇이 있고 그 바로 밑 <구석밭>이라는 지경에 <문호당>이 있으며 <개동산>에는 <개당>이 있는데, 이 <문호당>과 <개당>은 어린이의 疾病 특히 腫氣 등을 管掌한다 한다. <쇠당>은 牛馬를 管掌해서 牛馬의 疾病, 혹은 牛馬의 紛失時 賽神하면 効驗이 있었다 한다.

마을 西쪽 加時里로 가는 길에 大韓佛敎法華宗 靈佛寺라는 자그만 草家寺庵이 있으며 이 길을 건너 10分쯤 加時里쪽으로 걸어가면 길 남쪽에 雜木과 억새 따위가 엉클어진 돌머미 동산에 <일뿔당>이 나타난다. 요새도 꾸준히 賽神하는양 有色형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이 <일뿔당>은 表善面 兎山里에서 발상하여 全道의 分布를 이루는 蛇神崇拜의 堂이다. 舊旌義縣의 모든 마을에는 특히 이 <일뿔당>이 독립되어 있다. <일뿔당>이란 名稱은 7일, 17일, 27일 등 每7일에 享祭하는 堂이라는에서 말미암은 命名이다.

蛇神崇拜의 根源地인 表善面 兎山에는 성격이 각각 다른 두 堂이 있다. 하



명나무(天然紀念物 第161號)

나는 윗쪽(南쪽)에 있는 堂으로 곧 每 7日에 祭享하므로 <일뿔당>인 것이며 아랫쪽(北쪽)에 있는 堂은 每 8日에 祭享하므로 <여드렛당>인 것이다. <일뿔당> 堂神인 <신중포>는 龍王國의 막내딸로서 舊左面 松堂里 堂神인 <소로소천국>의 일곱째 아들과 結婚하여 兎山에 定住하게 되었는데 어린이들의 眼疾, 腫氣 등을 管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濟州의 甁신앙은 東國輿地 勝覽 등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아주 오랜 土着信仰인 것 같다. 外來의 信仰과 習合하여 이루어진 <여드렛당> 堂神의 職能은 致富인데 이 <여드렛당> 보다도 널리 퍼뜨려져서 거의 全島的 分布를 지니고 있는 <일뿔당>이 이 城邑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음은 城邑이 兎山과 近距離에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하겠다.

2. 教會·寺刹과 住民

城邑 1里에는 <예수교長老會 城邑教會>가 있고 <大韓佛敎法華宗 靈佛

寺〉가 있다. 이 두 宗教機構가 있는데도 城邑里民들은 별로 信仰生活에 열렬하지 않은듯 보인다. 教會·寺刹의 來歷 및 이 宗教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마을의 한 古老에게 물어 보았다.

〈問〉 城邑長老教會는 꼭 오래된 教會로서 도내에서도 일찌기 1909년에 建立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教會의 來歷 및 어찌하여 城邑里 주민들은 대체로 教會를 外面하는지, 말하자면 信徒數가 불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答〉 城邑教會의 來歷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으나, 약 60년전 建立된 오랜 전통을 가진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그 건물은 旌義郡守를 지냈던 서울 사람 成氏의 所有였는데 그럭저럭 所有주가 바뀌지다가 教會 敷地로 快擲된 바 됐었지. 教會가 건립될 당시의 첫 傳道師는 平壤분이었는데 李氏였어. 그런데 우리 城邑 사람들이 基督教든 佛敎든 天道敎든 무슨 宗教든 함부로 신앙하려고 휘말려드는 氣質이 아니거든요. 좀 保守의 이라 말할 수 있지. 소위 仙道라 해서 普天敎가 극성해서 도내에서도 마을마다 사람들이 빠져들어갈 때만 해도 이 普天敎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지. 심지어는 鄕校가 이 마을에 있어서 旌義縣 각처에서 것처럼 많은 분들이 熱烈했었지만 이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었지. 마흔을 지난 男信徒數가 단 한 분뿐인가 하면 한 가정의 家族 全員이 教會에 나가는 경우는 단 한 가구뿐인 줄 알지. 어린이들은 근래 불어나지만, 이곳 住民의 性情도 이런 면에서는 特異하단 말이야.

〈問〉 加時里 가는 곳에 法華宗系의 靈佛寺라는 절을 봤는데요, 이 절의 來歷 및 佛敎와 주민에 관한 말씀 좀…….

〈答〉 그래도 佛敎에는 주민들이 비교적 관여해 왔지. 지금 靈佛寺의 信徒數만 하더라도 3,4백명은 되니까. 表善 등지의 寺刹로 나가는 信徒들까지 합하면 5백여명은 되겠지. 지금의 靈佛寺 건물은 비단 보잘것 없는 조촐한 것이지만은 세운 지가 불과 3년 전이야. 이 마을에 寺刹이 생긴 지가 10년밖에 안되니까. 10년전 지금의 崔德弘 스님이 城邑에 와서 개인주택에서 布敎하기 시작했지. 주로 부인들이었지만 信徒가 20명쯤 확보되자 산넛도에 개인 所有지마는 不毛地에 草家를 짓고 임시 寺刹로 출발했었어. 그 임시로 세웠던 절의 址地는 在日僞

胞의 것이었는데 그 지주가 果樹園을 하겠다고 明渡를 요구하자 3년전에 現建
物을 마련한 것이지. 앞에서 말했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 어떤 까닭에서인
지 어떤 宗教든 종교를 신앙하고 종교활동을 하는데 활발하게 호응하거나 앞장
서질 않아. 해서 佛敎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만 宗教에 비해서는 비교적 受
容的이긴 하지만.

3. 酬 祭

城邑里에서는 儒式部落祭인 酬祭가 아직도 치러지는데, <牧童神>이 三神
位 가운데 끼어드는 게 그 특색이다. 酬祭는 里民이 총동원된 男性爲主의 祭享
이다. 舉祭일은 매년 舊曆 正月 初丁日. 祭壇은 마을 郊外 남쪽으로 떨어진
<포제동산>에 있다. 酬祭 거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祭官 選定이다.
祭官 選定일은 예부터 舊曆 12월 25일이다. 12월 25일의 里民大會에서의
重要議事日程에 里行政 및 經理經過報告, 事業計劃 및 豫算編成과 重要討議事
項 곧 酬祭祭官 選定이 있다. 祭官 資格은 가급 年老한 有德人이면서 名門出
身이라야 한다. 執祭時間 24時間 전에 被選된 祭官들은 祭廳에 모인다. 祭廳
은 固定된 곳은 없고 西上洞 祭壇 가까운 곳 주택으로 年年 정하는데 적당한
주택을 택할 뿐 名門家宅이라야 하는 規定은 없다. 舊曆 正月 初丁日 上午1
時쯤 舉祭하는데 그 前日 下午에는 祭廳에서 祭服을 다 차려입고 敎習을 한다.
舉祭하는 데 소요되는 祭需는 다음과 같다.

- 豚 15貫 以上 1頭(예전 牛 1頭)
- 牛肉 3~4貫
- 생선 11마리
- 幣帛紙 所要量
- 香燭 所要量
- 祭米 所要量
- 祭酒 所要量(지금은 燒酒를 쓰지만 日政末까지는 일부러 釀造하여 썼다)

祭享費는 全里民이 공동 부담한다. 예 들어 1972 년도의 경우는 戶當 보리쌀 1 升씩 收合하여 이를 買却하고 祭享費에 充當했다. 祭官은 일단 祭廳에 入祭하면 精誠을 다할 것은 물론이요, 外出은 일절 嚴禁된다. 食事도 각 制限에서 入祭日 저녁부터 翌날 저녁 食事까지 차려가는데 서로 잘 차려가려고 극성 부리기 때문, 祭官 家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弊端이 심하다 해서 1973 년부터는 合食하기로 되었다는 것이다.

祭廳이 정해진 동네에 初喪이 생기면 不淨하다 해서 祭日을 延期해야 한다. 醮祭祭享日이 舊曆 正月의 첫 '或丁或亥日'이라고는 하나가 급이면 初丁을 택하고 不意의 喪事가 祭廳 동네에 있거나 하면 中丁日이거나 末丁日로 연기한다. 예전 城山面 溫平里·古城里에서는 소 두마리를 犧牲하여 2神位를 모시었으나 城邑에는 이런 事例가 없으며, 城邑에서도 城邑2里(九龍洞) 및 表善面 細花·城山面 三達 같은 마을에서는 舊正月 1개월간은 주민들이 豚肉은 먹지도 않고 不淨하다 해서 祭需로 쓰지도 않는다지만 城邑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다.

城邑 1里 醮祭에 있어 特異性이 있다면 그것은 祭享 對象神이다. 祭享 對象神이 〈諸首任神之位〉·〈染疾神之位〉外에 〈牧童神之位〉가 있다. 말할 것도 없이 畜産業이 農業 外의 主要 生業이므로 〈牧童神之位〉가 끼어든 것인 줄 안다. 下壇祝에서 〈牧童神〉條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下壇祝

牧童神之位

牧童死神屠牛馬死神爲賊死神一境之内若此之神不知其幾孤魂無託祭祀不及陰魂未散結以爲妖生靈彌靈宴神所主馬牛避覽寔神所主城邑一村農牛騎馬畜屯之家屯牛屯馬永世賽癘晝夜看牧永使肥澤逐首自產歲加蕃殖小無小損永世太平事謹告。

牛馬가 잘 蕃殖하고 탈없이 잘 자라기를 祝願하면서 함부로 盜賊 당하거나 斃死하는 일이 없기를 충심으로 빌고 있다. 동시에 牧童 곧 畜産하는 村民들의 無恙를 빌면서 永世太平하기를 冀願하고 있다. 1973 년 현재 城邑의 醮祭 祭服 및 祭器는 다음과 같다.

○青衣	3着	○쟁반	4個
○儒巾	10個	○盥洗大楪	1個
○사발	4個	○나무쟁반	1個
○흰 접시	8個	○축판	1個
○푸른 접시	3個	○茅沙 접시	1個
○종지	6個	○笏	3個
○下壇 보시기	2個		

다음 이 마을의 酬祭記에 보면 다음 單子의 祭物이 필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稻米	3升	芹菹	若干
梁米	3升	荊鹽	若干
黍米	3升	栗黃	5點
稷米	3升	醴酒	2瓶
鹿脯	5脰	香	1封
鹿鹽	5脰	燭	1封
魚鱸	5尾	幣帛紙	3張
魚鹽	5尾	祝文紙	3張
菁菹	若干	犧牲	1頭

酬祭 獻官과 執事들은 다른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初獻官·亞獻官·終獻官·典祀官·執禮·大祝贊者·謁者·贊引·奉香·奉爐·奉爵·奠酌·司樽·酒監·飯監 等이다.

4. 연자매 (물방에)

다른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연자매 (물궤·물방에·물방이)는 다 뜯겼다. 다만, 일부러 復元한다면 웃돌 따위가 남겨졌으므로 두세군데는 再現이 가능할 것이다. 城邑에는 16個所에 연자매가 있었다.

南門물ㄴ래	빌렛동산물ㄴ래
東門물ㄴ래	창기물ㄴ래
공문동산물ㄴ래	막은굴물ㄴ래
당남밭물ㄴ래	서문거리물ㄴ래
가개비통물ㄴ래	왕돌목물ㄴ래(2個所)
돔부리통물ㄴ래	뒷골목물ㄴ래
산넛도물ㄴ래	성뒷물ㄴ래
客舍앞집물ㄴ래	

特記할 바는·客舍 앞집(城邑國民學校 南側집) 곧 城邑里 872 番地 趙一訓氏宅에서 個人所有로 집안에 연자매를 마련했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물론 뜰이 없었지만 趙一訓氏 祖父(日政時 區長職 지냄)時 建立했었다는데 개인이 연자매를 설치하는 예는 전도에서도 드문 일이다. 1973년 7월 현재 城邑의 家戶數가 216 家戶이니 평균 13·5 戶가 연자매 1개소씩 所有했었다는 얘기인데 다른 마을에 비해 비율이 갑절 높은 셈이 된다. 연자매는 70년전쯤 생겼으리라고 本里의 古老들은 기억하고 있다. 원래 연자매는 어느 곳에서든 人智의 발달에 따라 생겼었으니, 이것은 그 다음에 오는 精米機械가 생긴 生産器機의 革命만큼 農村社會의 큰 革新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各種 穀物의 精米過程에 있어서 純人力에 의하다가 牛馬力을 이용하게 된 것은 큰 改變이었다.

연자매를 마을에서는 <물ㄴ래>·<물방에>라 한다. 말(馬)을 이용한 멧돌, 또는 방아란 뜻이다. 30 家戶쯤이 한 그루우프가 돼서 서로 合議가 되면 연자매를 마련키로 하고 <물ㄴ래집>을 조직한다. 契資本은 쌀 또는 現金을 모아 이룩되는데 보통은 쌀을 모은다. 보리쌀 小斗 한말 내지 한말반 곧 大斗 4升~6升씩 모아 契의 基礎를 이루는데 10원~20원의 資本金으로 成立되었었다. <물ㄴ래왕>·<물방에왕>·<물방이왕>·<물ㄴ래집>·<물방에집>·<물방이집>이라 불리우는 연자매간의 敷地가 選定되면 멧돌을 만들고 建物을 지을 계획을 세운다. 敷地는 契員들 누구나 近距離인 中央地點으로서 가급이면 遊休地를 고를 것은 물론이다.

城邑里에는 불과 2km 이내에 멧돌을 만들 石材가 있어 편리했었으나 마을

에 石手가 없었다. 石手는 新豊, 아니면 擘瑟浦에서 招致해 온다. 新豊이면 吳石手, 擘瑟浦면 金石手가 유명했었는데 石手는 얼른 구하기 힘들었으며 비교적 優待했었지만 사례하는 日費는 兩兩~兩兩半이었으니 큰 돈은 못되었다. 연자매를 한箇 만들려면 15일쯤이 所要되었으며 建物은 契員들이 일제히 나와서 合力하여 세우는데 그 지붕을 일 떠나 材木 등은 共同으로 부담했다.

管理는 所任이 맡았었는데 所任은 契의 規約에 따라 해마다 번갈아 가며 이를 맡았었다. 만약 契에 가입되지 않은 者가 연자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旣 마을에서는 해마다 쌀 몇말씩 내기도 했었지만 修繕할 때나 지붕을 일 때 契員 이상으로 勞力을 부담하는 등 城邑里에서는 적절한 報償을 하는 데 그쳤었다. 移住하거나 해서 마을을 떠나게 되어 契員으로서의 權利를 포기할 때는 그냥 무조건 포기하는 것으로 끝난다. 本人이 義務를 다하지 못하거나 脫退할 때에도 <無本錢出送> 된다. 本錢을 내주지 않은 채 내쫓는다는 規約에 따른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필자의 民俗資料 調査報告書 第43號 《旌子磨》(文化財管理局, 1975)를 참고하기 바란다.)

5. 결 궁

城邑里는 縣廳所在地였으므로 外來人士의 移住 혹은 來往이 심했었다. 따라서 本土의 文物, 生活慣習, 娛樂의 輸入이 비교적 容易했었고 주민들이 이에 물드는 수가 많았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 하나로 이웃부락보다 비교적 성했었던 <결궁>을 예들 수 있다. 城邑里에서는 元來부터 <결궁>이 있었던 게 아니라 陸地人들이 이를 시작하여 재미있게 놓고 收入金을 有利하게 쓰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모방하여 시작했다는 것이다. 1969 년에도 마을 주최로 <안할망당>의 큰 굿의 祭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陰曆 正初에 <결궁>을 했었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旣 마을에 비해 이를 保有傳承하려는 열의는 不知不識間에 아직도 대단한 편이다. 지금도 <결궁>의 내용은 別差 없이 傳承되고 있지만, 60여년전의 경우를 회고하는 말을 들어 보면, 九代進士·쟁과리·북·정·砲手 등이 주요 멤버였다는 것이다. 초록색 따위의 色手巾을 쓰고 팔과 다리를 걸어 올려 묶은 모습이 演技者들

의 一般的 扮裝이었다. 말판 모양으로 종이로 지은 모자를 쓴 九代進士는 수염이 달리고 눈만 트인 탈을 썼었다. 道袍를 입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긴 담뱃대를 물고는 맨 先頭에 선다. 九代進士를 先頭에 세운 行列의 순서는 九代進士 다음 꿩과리 치는 분, 징 치는 분, 북과 장고 치는 분이 따르고 砲手는 맨마지막인데 그 뒤로는 구경군이 따른다. 우선 꿩과리가 꺾 울리면, 북·장고·징도 이에 장단 맞추어 울린다. 장단 맞춘 行列은 구경군들에게 휩싸인 채 各戶마다 방문한다. 방문하는 순서는 미리 정해 있는 바도 없으며 그때그때 相議에 따르는데 미리 방문할 집에 연락하지도 않는다. 九代進士가 先頭에 서서 한 家戶를 방문하여 主人에게 인사한다. 主人과의 인사가 끝나면 마당에서 한참 신나게 논다. 主人은 쌀, 돈이나 酒肴를 내놓는다. 演技者들은 이를 마시고는 외양간 같은 房마다 돌며 “이 구석 저 구석 내 구석”하고 외치면서 도끼로 꺾 꺾는다. 이러다가 역시 九代進士를 앞세우고 다른 家戶로 간다.

〈결궁〉은 곧 〈乞粒〉과 原質的으로는 같다. 부분적으로 變質的 樣態를 띠고 있을 뿐이다. 本土人들이 〈결궁〉을 시작할 때엔 물론 自擔했었으며 公共基金을 마련했거나 利益을 分割했었다. 城邑 원주민들이 〈결궁〉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마을의 共同費用이 필요한데도 里民 各戶에 分擔徵收가 너무 번거롭거나 거의 불가능할 경우, 合議에 따라 陰正初에 〈결궁〉을 벌인다. 共同으로 사용할 器機가 필요하여 施行하는 일도 많다. 收益된 돈으로 마련된 器機를 편이상 동네마다 나누어 쓰게 하기는 하지만, 〈결궁〉은 언제나 洞單位가 아니라 里單位로 시행했다. 城邑里 이웃마을에서도 城邑처럼 〈결궁〉은 해 오지만 城邑에서처럼 大的인 것은 못되었다. 맨처음 본토인들이 이 〈결궁〉을 시작할 무렵에는 城邑에서 차린 다음 城邑 마을은 물론이요 城邑 주변 마을을 뱅뱅 돌아다녔었다.

6. 民 謠

제주도가 民謠의 寶庫임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도 민요의 優秀性은 제주도 민요의 거의가 勞動謠요 이 勞動謠가 量的·質的으로 優勢하다는 점에 있다. 民謠의 本領은 勞動謠에 있다. 勞動謠가 壓倒的으로 많고 훌륭하다는 점

을 優先해서 제주도 민요의 特色을 筆者는 1964년에 다음과 같이 要約 整理한 바 있다. (拙著《濟州島 民謠의 特色》參照)

謠種으로 본 特色

- 勞動謠가 壓倒的으로 많다.
- 女謠가 大部分이다.
- 本土民謠에 비해 類似謠가 드물다.
- 情戀謠・舞踊謠・動植物謠 및 타령 등 陽地의 노래들이 드물다.

內容으로 본 特色

- 時空의 惡條件에서 오는 悲痛性
- 自主・勤勉性과 不敗의 信念
- 自主・勤勉性에서 오는 功利性
- 特殊한 風土地理에서 오는 浪漫과 그 限界

形態로 본 特色

- 譬喻를 優秀한 措辭
- 慣用句나 리듬의 作戲가 없는 含蓄性 있는 表現

모든 特色 規定은 慎重을 기해야 하며 함부로 잘라 말할 수 없는 至難한 일일 터이지만은 지금 역시 이 特色 定立을 改變할 旣 근거는 없다. 제주도내에서도 어느 마을에 民謠가 豊富한가고, 民謠를 採錄, 錄音하려는 國內外 人士들은 豐饒한 民謠를 간직한 마을을 물색하기 일쑤다. 많은 도민들은 이런 質疑를 받았을 때 우선 城邑을 내세운다.

과연 城邑은 도내에서 가장 典型的인 民謠 保有村落인가? 도내에서도 城邑에서만 흔히 불리우는 民謠라면 〈龍天劍〉・〈觀德亭 앞〉・〈개구리타령〉・〈梅花타령〉・〈중타령〉・〈연변가〉 등이다. 도내 각처에 散在해 있기는 하지만 〈오돌또기〉・〈봉지가〉・〈山川草木〉・〈이야홍〉 등도 특히 城邑에 부르는 분이 많다. 〈龍天劍〉・〈觀德亭 앞〉・〈개구리타령〉・〈梅花타령〉・〈중타령〉・〈연변가〉 등의 民謠들은 모두가 唱民謠다. 제주도 固有의 것이

라기보다 오히려 本土에서 流入, 定着된 것들로서의 그 나름의 값어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런 民謠들은 제주도의 典型的 民謠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런 民謠가 흔히 불리운다 해서 城邑을 제주도 민요의 典型的 歌唱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前述한 바와 같이 民謠의 오리지날리티는 勞動謠요, 제주도 민요가 값어치 있다는 것은 훌륭한 내용의 勞動謠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城邑에서도 제주도의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각종의 勞動謠가 불리운다. 1959년 여름, 表善里서 두시간을 暴陽과 싸우며 처음으로 城邑里 洞口에 이르렀을 때였다. 무려 30여명의 男女 農軍들이 밭 구석에서 구석까지 일렬로 앉아 김매며 유창하게 노래하는 광경은 지금까지도 꺾 印象의이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더불어 김매며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었기 때문이다. 여태껏 것처럼 자연스레 펼쳐지는 노동과 노래의 대향연을 다시 본 일 없으며, 더구나 城邑에서는 <홍애기>·<아웨기>라는 독특하고 빼어난 가락의 <김매는 노래>를 간직하고 있다.

역시 城邑里가 民謠와 관련지어 흔히 내세우는 이유는 住民들 특히 婦女子들이 노래하기를 즐겨하는 점과 더불어 <龍天劍>·<觀德亭 앞>·<개구리타령> 등의 타령, 말하자면 다른 지방에 안 불리는 민요가 傳承되기 때문이다. 이런 타령들이 제주도 안에서도 유독 城邑里에만 傳承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500年間 縣廳所在地로서 官吏를 싸고도는 妓女들이 즐겨 불렀었던 게 민간으로 傳承, 傳播되었을 것이다. 妓女들이 그 媒體인 셈이다. 제주도 민요의 생명을 勞動謠의 優勢性에서 찾아야 마땅하다면, 城邑里만이 제주도에서 民謠의 본 고장이란 觀點은 修正되어야 한다. 다음에 참고로 1963년 겨울 조사했던 바 城邑에서 傳承되는 唱民謠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1. 오돌또기

○唱者, 城邑里 玄在宣(女·50歲)

○採集日, 1963년 12월 24일

오돌또기 저기춘향 춤 잘 춘다

달이 밝고 내가 머리로 갈겨

등기데당실 등기데당실

이야도당실 연즈바리고
놀도 뵈고 내가 머리로 갈거

청세초롱에 불 붉혀들고
춘향의 방으로 밤소일 간다.
 등기데당실 등기데당실
 이야도당실 연즈바리고
 놀도 뵈고 내가 머리로 갈거

인제 가문은 언제나 올까
언제나 올걸 내가 몰라진다
 등기데당실 등기데당실
 이야도당실 연즈바리고
 놀도 뵈고 내가 머리로 갈거

맹년 이 시절 춘삼월 나문은
가시단 임도 되돌아온다
 등기데당실 등기데당실
 이야도당실 연즈바리고
 놀도 뵈고 내가 머리로 갈거

가문 가곡 말문은 말았지
초신을 신고 어찌야 나 혼자 갈까
 등기데당실 등기데당실
 이야도당실 연즈바리고
 놀도 뵈고 내가 머리로 갈거

맹사심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화를맡아
 등기데당실 등기데당실
 이야도당실 연즈바리고

할도 뭉고 내가 머리고 갈거

등경가세 드등경가세

하느님께 에야라 드등경가세

둥기데당실 둥기데당실

이야도당실 연스바리고

할도 뭉고 내가 머리로 갈거

2. 觀德亭 앞

○ 唱者, 城邑里 金昌彦 (男· 64 歲)

○ 採集日, 1963 年 12 月 24 日

관덕정 문앞이

영리방 걸음을 걸어라

아기종 흥 아장거려서

신목스 후리레 나간다

지와자 종소

대명당 허리로고나

아기종 흥 아장거려서

신목스 후리레 나간다

너는 누며 나는 누냐

상상땅의 조즈롱이로고나

지와자 종소

대명당 허리로고나

아기종 흥 아장거려서

신목스 후리레 나간다

3. 龍天劍

○ 唱者, 城邑里 康平文 (男 · 43 歲)

○ 採集日, 1963 年 12 月 24 日

찾든 칼을 쓱 빼고 보니
난디 없는 용천의 검이라
에야라되야 에야라되야
방아로구나

날랑 죽건 꽃이나 되곡
널랑 죽건 나부나 되곡
에야라되야 에야라되야
방아로구나

너는 어떤 지집의 아이로
장부의 실간장 다 녹여간다
에야라되야 에야라되야
방아로구나

네눈 슬쩍 내눈은 끄끔
양눈치 속에서 벨웅게 논다
에야라되야 에야라되야
방아로구나

4. 龍天劍

○ 唱者, 城邑里 金昌彦 (男 · 64 歲)

○ 採集日, 1963 年 12 月 24 日

차단 칼을 쓱 빼고 보난

난디 없는 용천의 검이검이라
 에에로다 에헤라야 두야라
 방아로구나

갈적 을적 정디려놓고
 이더지 저더지 몬살갓네
 에에로다 에헤라야 두야라
 방아로구나

너는 누며 나는 누냐
 삼상땅의 조즈롱가
 에에로다 에헤라야 두야라
 방아로구나

요년 저년 천하에 잡년
 요년 오국강산 생오좁쌀년
 에에로다 에헤라야 두야라
 방아로구나

너는 어떤 지집아이로
 장부 간곡간장 쓸쓸이 속이드나
 에에로다 에헤라야 두야라
 방아로구나

5. 봉지가

○ 唱者, 城邑里 金昌彦 (男 · 64 歲)

○ 採集日, 1963 年 12 月 24 日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원천강이 안개 리리리리리
 봉지가 진다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아어어에 리리 아이얼씨고나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청도리리리리리리리

봉지가 진다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홍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홍

들어를 간다 들어를 간다

삼밭티로 엘수 들어를 간다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홍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홍

흙은 삼대 제와 놓고

즈진 삼대 춤을 춘다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홍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홍

6. 山川草木

○ 唱者, 坡邑里 朴鸚鵡 (女 · 69 歲)

○ 採集日, 1963 年 12 月 24 日

산천초목 성님이난디

에헤이요 귀경가기가 엘화 반가워진다

벼님이 불러 향민 돈벼님 불고요

풍년이 들라 향민 예라 임풍년 들어

높은산 상상봉 외로산 저 솔나무

너 혼자 에리화 외로이 샷구나

너는 어떤 지집아이로
대장부 간장 에라 다 녹여가나

7. 봉지가

○ 唱者, 城邑里 朴 鸚鵡 (女 · 69 歲)

○ 採集日, 1963 年 12 月 24 日

봉지가진다 봉지가진다
봄철 나서 얼싸 봉지가진다
에 화리리리리에헤여
에 화리리리리에헤여
아아에에화리리 아에화아에에
에효오마 날세이로고나

산수갑산 험악한 질에
발벙웃이 편안히 가오
에 화리리리리에헤여
에 화리리리리에헤여
아아에에화리리 아에화아에에
에효오마 날세이로고나

사름이 못나민 돈 보고 살고
알이알씨민 정 보고 산다
에 화리리리리에헤여
에 화리리리리에헤여
아아에에화리리 아에화아에에
에효오마 날세이로고나

앞강에 뜬배는 줌수실은 배연마는
뒷강에 뜬배는 입실은 배이라

에 화리리리리에혜여
 에 화리리리리에혜여
 아아에에 화리리 아에 화아에에
 에 효오마 날세이로고나

멩사십리 해당화야
 꽃떨어진다고 설위를 말아
 에 화리리리리에혜여
 에 화리리리리에혜여
 아아에에 화리리 아에 화아에에
 에 효오마 날세이로고나

8. 질군악

- 唱者, 坂 邑 里 玄 在 宣 (女 · 50 歲)
- 採 集 日, 1963 年 12 月 24 日

멩사십리 해당화여
 꽃진다고 어야에 설화 말아
 에에 나니나니에행 요요나요나라
 에행에기야에헤나니라

펄롱펄롱 冬 갑 스댕기
 오곰테도 언니도 에행이에 씨집만간다
 에에 나니나니에행 요요나요나라
 에행에기야에헤나니라

늙은 사름 죽제도 말곡
 젊은 사름 늙제도 말곡
 에에 나니나니에행 요요나요나라
 에행에기야에헤나니라

청새초롱 불 밝혀놓고 에헤요
 춘향 방으로 에행요 밤소일간다
 에에나니나니에행 요요나요나라
 에행에기야에헤나니라

등경가세 등경가세
 하늘님께 에헤라 등경가세
 에에나니나니에행 요요나요나라
 에행에기야에헤나니라

꽃은 피어 만발이 되고 에행
 꽃은 일단 피었다 피었다 간다
 에에나니나니에행 요요나요나라
 에행에기야에헤나니라

9. 질군악

○ 唱者, 城邑里 康平文(男·43歲)

○ 採集日, 1968年 12月 24日

산에 올라 옥을 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나
 울통불통 차남산불통
 우리도 죽으면 요 모양 된다
 달 떠온다 달 솟아온다
 월출동경에 달 솟아온다
 천포가 지나 만포가 지나
 토란잎의 이슬 지나
 우리 인성 죽어지문
 세상만스 허세로다

10. 梅花타령

○ 唱者, 城邑里 邊如玉 (女 · 58 歲)

○ 採集日, 1963 年 12 月 24 日

널랑 죽거든 고기다고기다 장들이나 되고

날랑 죽거든 매화가 실강산만 되는다

옛다 요년 돈받아라

지화자 산경이 들고서 두리돌돌 내 돈만 받아라

십리화방에 범나비 떴다

소소리방풍에 땡그러지떨떨

엄동설한에 에리화 문풍지만 떠는다

옛다 요년 돈받아라

지화자 산경이 들고서 두리돌돌 내 돈만 받아라

정든 서방님 외좁은 골목에

단들이만 만나고

백황루구경정변에 아이고 발이 발발 떠는다

옛다 요년 돈받아라

산경에 걸어서 생오좁만 졸졸 싸는다

11. 솔락타령

○ 唱者, 城邑里 邊如玉 (女 · 58 歲)

○ 採集日, 1974 年 12 月 24 日

솔락이 라지 솔락이 라지

네가 무슨놈의 솔락이 라나

꽃이 피여사 솔락이 라지

어기여 차뒤여 다지닷감는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인다

매화라지 매화라지
 너가 무슨놈의 매화라지
 꽃이 피여사 매화라지

어기여차뒤여 다지닷잠는소리
 장부의 간잠만 다 녹인다

12. 개구리 타령

○ 唱者, 城邑里 金昌彦(男, 64 歲)

○ 採集日, 1963 年 12 月 24 日

에헤에야 얼싸얼싸
 안좋다 안좋다 흥에에에야
 갈적 울적 정들여놓고
 이벨이 좋고 내가 못살것네
 얼싸 둥지지둥에 내사랑아
 개고리방죽을 좃고서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라
 에에헤야 에에헤야
 성조차 청개 흥에 흥에 흥에야
 에헤에야 얼싸마 둥개치둥에
 내가 치스랑아

V. 社 會

1. 概 觀

— 地理·交通·商易·組織 等 —

약 500년간 旌義縣廳 所在地였던 城邑리는 俗稱 〈旌義고을〉이라 하는 山間의 한 農村이다.〈旌義고을〉을 줄여서 〈정의곶〉 혹은 〈정곶〉이라고도 한다. 行政區域上으로는 南濟州郡 表善面에 속해 있는데 1961년 이후 城邑1里·城邑2里로 分割되었다.

城邑1里的 最高標高는 125 m이며 城邑2里的 最高標高는 210 m이니 海岸에서 8 km(1里) 내지 11 km(2里)나 떨어진 山間이라 하지만 그다지 높은 地帶는 아니다. 城邑1·2里를 합친 總家口數는 약 300 가구이며 약 1,500명의 人口를 포용하고 있다.(이 家口數 통계는 家口全數에 대한 직접 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表善面事務所의 통계와는 다르다.)

城邑2里는 1里에서 3 km나 올라간 곳의 〈구렁팻〉(九龍洞)과 主畜團地가 있는 〈안밭〉(安保洞)을 합친 行政區域이지만 약 50 가구에 人口 250명에 불과하니 자연 城邑리라면 城邑1里가 主軸이 되게 마련이다. 약 250 가구의 城邑1里는 表善里에서 버스로 川尾川을 따라 35분쯤이면 도착된다. 버스는 西歸浦發이 두 대, 濟州市發이 한 대, 합 세 대가 날마다 아침·낮·저녁 3회에 걸쳐 도착되며 또한 이 버스들이 濟州市(1대)와 西歸浦(2대)로 아침 11시부터 하오 7시 20분까지 출발한다. 1965년까지만 해도 表善에서 버스를 내린 다음 두 시간 동안이나 허덕허덕 걸어 올라와야만 現地調査가 가능했던 때를 想起하면,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이곳을 찾아드는 손님들에게도 놀라운 變貌인 것을 근래 實感하게 된다. 5·16 직후 里民들의 한결같은 陳情에 따라 이 버스 路線이 개통되는데는 城邑里 出身 在日僑胞들의 財政的 支援과 주민들의 勞力負擔에 따라 12m의 路幅으로 擴張, 整地하는 등의 誠意가 밑받침되었었다.

北으로 朝天面과 舊左面, 西에 南元面과 東에 城山面을 끼고 있는 表善面은

제주도의 東南에 위치한 자그만 面이다. 法定里數가 6個里요, 行政里數가 9個里인 이 表善面은 朝鮮朝 初에서 5세기에 걸쳐 旌義縣廳 所在地였던 城邑里를 두고 있으며 廣漠한 牧野地를 가졌다는 의로 별로 特色이 없는 189 *km*²의 平凡한 面이다. 城邑里는 南으로 表善里와 細花里를 두었으며, 西南으로 加時里와 兎山里, 東에 城山面 新豊里와 三達里, 北으로는 南北郡의 境界를 두고 松堂里(北濟州郡 舊左面) 地境과 接하는데 1.2里 합쳐서 약 57 *km*²의 面積이다. 表善面內 各里의 面積과 家口 및 人口統計를 提示하면 <表1-1>과 같다.

<表1-1> 表善面內 里別 家口 및 人口

里 名	面積(<i>km</i> ²)	家口數	人 口 數			人口密度 (<i>km</i> ²)	家口當 人口數
			計	男	女		
表 善	16.73	736	3,517	1,661	1,856	210.3	4.7
下 川	21.39	291	1,344	643	701	62.8	4.6
城邑 1	33.07	281	1,259	566	693	38.0	4.4
城邑 2	24.40	61	293	145	148	12.0	4.8
加 時	58.82	300	1,595	748	847	27.1	5.3
細花 1	11.35	248	1,118	524	594	98.5	4.5
細花 2	4.97	144	755	363	392	151.9	5.2
兎山 1	8.85	112	558	243	315	63.0	4.9
兎山 2	9.09	140	686	312	374	75.4	4.9
計	188.67	2,313	11,125	5,205	5,920	58.9	4.8

○ 資料 : 表善面事務所

○ 1972年末 現在

川尾川을 따라 城邑으로 올라가노라면 마을 가까이 이르러 南山峰이 뚜렷하며 海岸쪽(南側)으로 눈을 돌리면 梅峯(鷹峰, 137 m)이 뾰족하니 날카롭게 보인다. 城邑 1里를 병풍처럼 둘러쳐서 포옹하는 瀛洲山(325 m)의 雄姿를 의연히 쳐다보며 川尾川천으로 눈을 돌리면 <시거니못>과 <올라니못>이 유

달리 보인다. 적어도 瀛洲山, 百樂岳(백약이오름)의 의젓함과 < 시거니못 > · < 올라니못 > 및 마을 안의 느티나무 · 소나무 등의 볼품 — 이 三者를 보고 나면 風水地理說에 전혀 識見이 없더라도 과연 이곳을 都邑地로 정한 연유를 조금은 짐작할 만하다.

南山峰 東쪽에 < 본지오름 > (150 m)이 이쁘게 보이며 西쪽으로는 < 무찌오름 > (300 m)이 의젓하다. < 무찌오름 > 앞에는 < 장자오름 > (215 m)이 보이며 < 장자오름 > 西南側에는 < 갑선이오름 > (188 m)이 있다. < 설오름 > (232 m)은 < 무찌오름 > 西西南에 위치해 있다. 城邑 2 里 九龍洞 바로 北쪽에는 < 개오름 >이 막 들어서 있으며 < 모구리오름 > (232 m) · 獨子峰 (159 m) · < 가시오름 > (208 m) · < 이거네오름 > (160 m) · < 궁대오름 > (200 m) · 좌범이오름 (坐虎岳) · < 돌리미 > (廻山, 158 m) · < 문석이오름 > (346 m) · < 동꺼문이 > (346 m) · < 높은오름 > (405 m) · < 손지오름 > (孫子峰) · < 아부오름 > (192 m) 등이 城邑里 주변에 제멋대로 흩어져 있다.

이상의 봉우리들은 물론 城邑地境 外의 것들이 많다. 다만 城邑 西와 北을 둘러친 이 허구많은 봉우리들은 다만 城邑里를 따듯이 감싸기 위하여 點點이 흩어진 것처럼 보인다. 다른 마을에서 쉬 찾아 볼 수 없는 韻致 짙은 情景이다. 里長 康贊鎬氏의 주선으로 耕耘機를 타고 九龍洞과 主畜圃地를 갔다 온 일이 있다. 一望無際로 트인 牧野地에 땀 흘리며 뽕뽕뽕뽕 솟은 봉우리들을 내다보면서는 문득 神의 造化의 無窮함을 實感케 하면서 한편 敬虔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荒野를 걸어본 분이라면 제주도가 좁다란 섬이라는 意識은 이내 잊을 것이며 활짝 트인 大自然의 闊현악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城邑里民들의 가장 중요한 나들이는 表善 5 日市場 출입이다. 매월 2 일 · 7 일 · 12 일 · 17 일 · 22 일 · 27 일마다 열리는 表善 5 日市場을 통하여 日常必需品, 衣類, 食品 등을 사들인다. 하루 3 회 드나드는 버스는 장날이면 장군들로 超滿員이다. 平常時도 城邑을 드나드는 버스는 언제나 만원인데 장날이면 거의 장군의 90 %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 3 회왕복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臨時增車하는 수가 있다. 실제 목격했지마는 버스가 마을 한복판 日觀軒 앞에 도착할 때마다 日用品 사다 주기를 의뢰한 부인들, 장군을 기다리던 조무라기들이 와르르 모여드는 모습은 바로 잔칫날 같다.

農土가 肥沃하지도 않고 氣候가 農事에 알맞지 않으므로 특별히 내다 팔 것은 없고 가끔 粟·콩 등 雜穀類를 가져가는 정도다. 表善을 왕래하는 8 km의 길은 버스 開通前에 補修했기는 하나 川尾川 옆으로 주욱 뻗어 나갔기 때문에 豪雨가 쏟아지고 나면 길은 엉망이 된다. 다시 補修할 때까지 일주간은 버스가 통할 수 없으니 아스팔트를 까는 게 里民들의 한결같은 所望이라고 城邑國民學校 教師 洪奉文氏는 역설한다.

城邑 2 里的 九龍洞이나 主畜團地(安保洞) 주민들이 表善 等地로 來往하려면 城邑 1 里 주차장까지 걸어와야 한다. 가끔 耕耘機가 오르내릴 때 5, 6명씩 便乘하는 예도 많았다. 이 經濟的 交易圈은 어디서나 예로부터 農村社會에 있어서의 중요한 커뮤니티다. 특히 두 시간 가까이를 걸어 갔다 다시 또 장을 보고 그만큼 걸어 와야 했던 城邑~表善의 길은 그 거리가 꽤 멀 뿐더러 버스가 생긴지도 불과 7년전이니 그 길은 城邑里民들의 중요한 窓口로서 文化的·社會的 機能이 대단했으리라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城邑~表善間의 길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마는 城邑의 古老들은 아직도 表善 갔다 오는 일을 “村에 갔다 온다”고 말한다. 1934년 表善面事務所가 城邑에서 表善으로 옮겨갈 때까지 사실상 表善이 시골이었음은 물론이요, 아직도 都邑地 주민으로서의 矜持는 잃지 않은 <斜陽族>이 남겨진 것은 곧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表善 5日市場 외로 住民들은 新山·細花·西歸 5日市場을 가끔 출입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생기기 이전, 말하자면 40여년전까지는 주변 마을은 물론이요, 濟州市 往來도 步行일 수밖에 없었다. 市와의 往來는 產業道路를 이용, 漢拏山 기슭을 따라 北西로 횡단해 올라갔다. 곧 九龍洞을 거쳐 南北郡 境界를 넘고 舊左面 등성마루를 가로질러 朝天面 臥山, 臥屹, 市管內 奉蓋를 넘고는 濟州市街로 들어갔다. 古老들의 말에 따르면 아침 8시쯤 출발하여 하오 3시에 도착되었다니 무려 7시간이 걸렸었다는 얘기가.

城邑 1 里는 지금 西上洞·西下洞·東洞·西洞 곧, 4 個洞으로 나누어졌다. 里를 統轄하는 里長이 있고 洞마다 洞長이 있다. 그리고 各洞에는 洞 새마을指導者가 있다. 里長과 洞長은 주민이 선출한다. 里事務所는 1971년 在日僑胞

의 지원을 얻어 마을會館으로 쓰일 넓은 방이 달린 현대식 건물로 지어 놓았다. 里事務所에는 里長 外로 里書記(洪奉斗) 한분에 雇傭員(本土出身) 한분이 있는데 반드시 사무소를 지켜 앉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온통 비어 있을 때도 있다. 里事務所에는 家口主名과 家口員數를 性別로 적어 놓은 班名簿 외로 마을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하등의 자료도 없다. 불과 250家口이니 눈감고도 집집 사정을 살살이 알 수 있으니 무슨 자료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말하자면 里長이나 古老의 머리속에 자료는 담겨진 셈.

前述한 4個洞 역시 半行政的인 분할이었고 自然聚落에 따른 동네이름은 <성뒷골> · <가가비통> · <막은골> · <아득골> · <남문골> · <벌런방죽> · <창뒷골> · <옥골> · <왕돌목> · <뚝부리> · <노드리방죽> · <안밭> · <생긱골> · <당남밭> · <벤저리동산> · <므름터> · <공문동산> · <성뒤> · <빌랫동산> 등이며 川尾川이 이 마을을 뱅 둘러싸서 흘러가고 있으므로 이 川尾川과 마을과가 連接된 지점으로 <산넛도> · <녹남도> · <췌깃도> · <가죽물도> · <앞넛도> · <셋넛도> · <굴맹이> · <관도> · <대도> · <수쟁이도> · <사우장도> 등이 있다.

이 동네 및 지경이름 중에는 옛 縣廳所在地였기로 命名된 이름들도 몇몇 보인다.

<공문동산>……………옛날 官廳들이 주옥 늘어선 거리라는 데서.

<성뒤>……………城 後側에 있으므로.

<노드리방죽>……………客舍터(現學校)에서 南門까지 가는 길에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데서.(지금도 學校 南側에 <노드리방죽>이라는 沼가 있다.)

<창뒤>……………倉房 뒤에 위치했기 때문.

<아득골>……………衙前들이 살았었다는 데서.

<관도>……………朝天館으로 가는 出口이기 때문.

<사우장도>……………射場으로 가는 出口이기 때문.(여기는 南北郡 境界)

이외로 <왕돌목>은 예전力士들이 힘 겨룬다고 들었던 巨石이 있었던 곳
이요, <닥남밭>은 닥나무(楮)를 재배했었다는 곳이며, <므름터>는 마을
中心(宗)된 거리라는 것이다.

行政上의 班은 20班으로 分班되어 있다. 家口數는 반당 8가구~19가구인
바, 班別 家口 및 家口員數는 <表2-1>과 같다. 각반마다 班長이 있는데 이
는 여느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번갈아가며 맡는다.

<表2-1> 家口 및 家口員數

城邑1里

班 名	家 口 數	家 口 員 數		
		男	女	計
1	10	26	34	60
2	8	18	17	35
3	11	28	36	64
4	13	32	35	67
5	15	52	38	90
6	15	34	36	70
7	17	38	29	67
8	14	25	23	48
9	12	26	26	52
10	19	34	43	77
11	10	23	28	51
12	10	17	24	41
13	13	31	24	55
14	11	21	28	49
15	12	30	30	60
16	9	13	20	33
17	10	15	31	46
18	12	31	32	63
19	14	40	34	74
20	16	43	40	83
計	251	577	608	1,185

○ 資料 : 現地調査

○ 1973年 7月末 現在

주요기관 및 단체로는 城邑國民學校, 表善面 農業協同組合 城邑分所, 城邑 4 H俱樂部, 城邑婦人會, 城邑어머니會, 城邑青年會, 城邑牧場組合, 儒林會(郡單位) 등이 있으며 濟州市에 在市城邑親睦會, 서울에 在京旌義鄉友會, 일본에 在日城邑親睦會 등이 있다.

1909년에 세워진 教會가 한군데 있으니, 곧 전도적으로 設立年代가 오래다
는 城邑長老教會이며, 寺刹은 소규모의 大韓佛敎法華宗靈佛寺가 있다. 雜貨와 酒類가 놓인 商店이 13개소나 있는가 하면, 理髮所가 둘, 精米所가 두군데 있다. 郵遞통이 한 개 있는데 表善郵遞局에서 集配員이 일요일을 빼고는 날마다 한차례 다녀간다. 病院도 없고 藥局도 없다.

城邑 2 里에는 里長이 自家에서 里行政을 맡아보는데 불과 .50 가구뿐이므로 里事務所 建物이 따로 없다. 農協 일은 1 里에서 통괄하며 새마을 지도자가 九龍洞과 安保洞(主畜圃地)에 각각 1인씩 있다. 上水道는 이미 가설되었다. 가끔 斷水될 경우에는 <시거니못>에서 길어다 먹거나 가끔 家庭에 댕크 시설을 하여 받아 둔 奉天水를 마신다. 在日僑胞의 지원 등으로 電氣를 가설하기 위한 설치는 이미 끝났으나 아직 자금확보 등이 역시 難題여서 주춤하고 있는 형편이다.

里共有財産으로는 마을 西北쪽 醮祭 동산 밑에 5,000 평의 林野와 南山峰 盆地에 2,000 평의 牧野地가 있다. 앞의 林野는 해마다 열리는 醮祭 祭廳 주인에게 醮祭 舉行을 서둔 사례로 그 林野에서 나는 燃料를 쓰도록 하며 南山峰 盆地 땅은 방치되어 있다. 里事務所內에는 우리 文庫 시설이 있으며 지금 200여권의 서적이 소장되어 있다. 1970 년도에 김규석씨 등 20여명이 모여 讀書會를 마련하고 自費를 釀出, 文庫 書籍을 확보한 것이다.

이 마을에는 鄉老會라는 친목단체가 있다. 회원은 24 명이며 15년전에 창립되었는데 現會長은 高龍熙氏(男·75歲). 회원간의 친목과 大事時 相互 扶助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鄉老會는 회원덕에 初喪, 婚事, 住宅改造等 大事를 당할 때면 회원들이 물러가서 일을 도와 주며 酒類 등을 扶助하기도 한다. 會費로써 마련된 張幕이 있다. 물론 契員은 無償 使用이요, 非契員에게는 사용료를 받아 회의 經常費로 쓴다.

川尾川 上流 들판에 植木을 하였으며 달마다 회원들이 모여 회운영을 협의

하고 놀며 즐긴다. 많은 마을에 오래전부터 조직되어 있는 吟社나 詩會가 이 城邑 1리에는 없다. 儒學的 분위기가 더욱 넘칠 것 같으면서도 吟社, 詩會 등이 없는 이유는 官吏들의 僞善的 生活을 너무 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은근히 반발해서일까?

마을마다 있는 契(접)로는 <물궤접>·<장막접>·<화단접>·<산담접>·<쌀접>·<뿔접>·<뿔접> 따위가 중요한 것이다.

<물궤접>……………城邑 1리에는 16개소에 연자매(물방에)가 있었다. 그중 1개소는 個人所有(趙一訓氏 祖父 所有)였으므로 論外이지만 15개소의 연자매를 運用하기 위한 契로서 그 운용 규칙은 다들 비슷했다.

<장막접>……………장막을 사들이고 契員이 쓰며 契員외의 분들에게 貸與하여 契 經常費로 쓴다. 城邑 1리에는 <하골장막접>과 <상골장막접>이 있다. 洞에서 사들여 洞共同으로 運用하는데 鄉老會에서도 장막을 마련했으나 <장막접>機能을 겸하는 셈이다.

<화단접>……………喪輿契인데 골마다 있다. 골의 동민들이 각출하여 喪輿를 마련하고 共用한다.

<산담접>……………<산담>이란 墓所 둘레를 네모나게 쌓은 돌담. 葬地가 너무 멀든지, 葬日이 雨天이거나 아니면 喪家의 意圖에 따라 葬日에는 封墳만 쌓을 경우, 후일 契員들에게 의뢰하든지 請負를 주어 <산담>을 쌓는다. 이 <산담>쌓기를 맡아 勞役하고 賃金을 契의 수입으로 돌려 利潤을 配分받는 契를 <산담접>이라 한다. 이 契의 수입은 각 연말에 돼지를 사서 祭需로 나누거나 현금으로 分配받는 게 常例다.

<쌀접>……………婚事, 初喪, 家屋改築, 新築 등 大事 때, 對備하느라고 만들어진 契로서 가장 흔하고 유행되는 民間自生組織이다. 契員은 쌀, 혹은 現金을 각출하여 契를 발족한다. 契員中 큰

儀禮가 있어 도움 받기를 원하면 규약에 따라 一定量의 쌀을 건넨다. 契 財源을 備蓄했다가 내주는 경우보다 그때그때 契員들에게 수합하여 전하는 게 常例다.

〈웨점〉…………… 팽이·삼·지레 등 農機具를 會員 各금으로 구입하여 契員이 쓰고 賃貸料를 非契員에게서 받아 運用하는 契.

〈켓점〉…………… 牛馬主들이 遊休牧野地에 닭을 쌓고 마소를 養育하는 契다. 契員所有의 마소를 마음대로 놓아 먹일 수 있음은 물론, 비제원(주르 外里民)의 牛馬를 놓아 먹여 줄 때는 샴을 받아 契의 수입으로 한다.

돌닭을 둘러친 遊休牧野地를 〈케왓〉이라 하며,年間 契의 수입으로 百中남쯤 제원들이 모여 會飲, 吟詠하며 즐기기도 한다.

이 외에도 同甲契·婚需契·歲饌契 등이 있으며 各樣의 宗契가 있다. 前述한 契들 가운데 〈물맷점〉 같은 契는 연자매가 뜰기면서 자연 解體되었거나 다른 契로 變貌되었고 근래에는 특히 처녀들 새에서 婚需 마련을 위한 細分된 契가 유행한다. 젊은 층의 그루우프도 몇몇 있다. 말하자면 〈소나무 그루우프〉(會長 康基昌) 같은 것이다.

2. 住民의 意識構造

城邑里 住民들의 意識構造에는 뭔가 다른 마을과 유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물론 短期間 調査로써 이런 深層의 心意現象을 요약하여 裁斷하기란 힘든 일이며 삼가야 될 일인 줄 잘 안다. 아마 現地調査에 있어 가장 難題의 하나가 이런 작업일 것이다. 필자는 1959년부터 번번히 다른 主題를 지닌 채 무수히 城邑里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먼 45일, 3개월간이나 集中調査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체로 民族誌的인 조사를 실시해 가는 가운데 特異한 城邑里의 住民意識이 분명 있으리라는 생각과 이를 분석해 보았으면 하는 충동을 느

졌다. 한 지역민의 性格究明은 不可視의 心意現象이므로 그 작업이 힘들며, 社會學·心理學·人類學·民俗學·歷史學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과 그 總和가 필요하기 때문에 썩 어렵다. 城邑里民의 意識을 밝히기 위해서는 韓國人 特有的 意識이 밝혀져야 하며, 또한 濟州民의 平均的 民衆意識, 곧 제주도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마직에 이르러 빈번히 논의되기는 하지만은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곧 우리 民族性이 무엇이나 물을 때 한 마디로 답변할 말이 아직 없으며, 濟州民의 特異性格 또한 아직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城邑里民의 意識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韓國人의 意識을 바탕으로 깔고 濟州民 特有的 性格을 구축한 위에 城邑里民 特有的 意識이 接木된 게 城邑里의 住民意識이겠기 때문이다.

濟州文化의 類型化作業(pattern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인데다가, 또한 城邑里의 文化類型(cultural patterns)이 정립될 만큼 그 조사, 연구가 진전되지도 못했으며, 城邑里와 비슷한 여건에 놓인 마을에 대한 조사작업도 아직 없으니 比較研究도 힘든 셈이다. 여기에서는 이 방면에 深層的 考究를 할 분들을 위하여 극히 皮相的인 데 머문다.

城邑里民은 風流, 享樂의이며 自意識이 강하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설령 風流, 享樂의인 게 사실이라면, 500년간 도읍지로서 日常 官憲들이 妓女들과 더불어 酒色에 빠지고 뇌물을 먹으며 사는 모습을 늘 보아 왔기 때문 無意識的으로 주민들의 生活氣風에까지 자연 영향되었으리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日常 주변에서 향락하는 官吏들을 目見해 왔을 뿐더러, 직접 그런 官吏와 더불어 사는 家族이 있고 親族이 있었다. 妓女들의 血族이 있었으며 官衙를 감싸도는 자들이 있었다. 朝鮮朝時代에는 어느 사회에서도 權力의 주변은 자칫 지지분하기 쉬웠으며 善良한 民衆들의 苛歛誅求의 反對給付에 따른 관리와 관리 주변에는 豪華로움과 逸樂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필자가 이 城邑里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59년 여름이었다. 지금의 表善中·綜合高等校長 玄化珍氏의 주선에 따라 城邑國校에 재직중인 洪奉文氏와 더불어 허덕허덕 걸으며 城邑를 찾았었다. 玄化珍校長 慈堂 협조가 덧붙여져서 謠唱者들은 쉽게 面對 採錄할 수 있었다.

<시거니못> · <올라니못>쯤에 당도했을 때, 瀛洲山 · 南山峰 등 수 많은 봉우리들이 마을을 포옹하는 그 韻致도 감격적이었으며, 무려 설혼남짓이나 되는 男女 일꾼들이 뒤섞이어 나란히들 집을 매어 가면서 “여기요랑 사디야” 싱그럽게 들려 오는 民謠의 합창소리도 평생 잊을 수 없는 情景이었거니와 그 날밤 民謠 採錄에 적극 호응하는 그 발랄한 태도들이 또한 인상에 남는다.

- 득리손당 큰애기덜은
- 피방에짚기 일수여마는
- 정의뜰의 큰애기덜은
- 담배피기 일수로구나
- (朝天面 威德里 女 53·夫英敏唱)

이런 <맷돌 · 방아노래>가 있는데 표준어로 번역하면,

- 橋來松堂 큰아기들은
- 피방아짚기 일수네마는
- 城邑里의 큰아기들은
- 담배피기 일수로구나

朝天面 橋來 · 松堂은 예로부터 제주도의 山間部落으로서 한갓 典型처럼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城邑里와는 바로 南北郡 境界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는데 生活水準이나 生活樣態, 生業構造 등이 아주 비슷하다. 廣闊한 牧野地를 가졌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지금은 그저 恰似할 따름이지마는, 예전에는 사정이 달랐다. 橋來 · 松堂은 한갓 보잘것 없는 山間 마을일 뿐이었지만 城邑은 山間이면서도 의정한 縣廳所在地였다. 주민들의 自矜度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적당히 놀고 즐기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여러 차례 民謠 · 說話 중심으로 민속 조사차 드나들었지만 40대 이상의 여인들 중에는 술과 담배를 즐기는 분이 많다. 물론 앞엿 民謠에서는 단지 술 · 담배를 즐긴다는 表皮的 言表 말고도 사치스럽고 享樂할 줄 알고 積極的이라는 뜻들이 대체로 포괄된 것이다.

1960년 여름 松堂에서 강신호(女·70)라는 팬참은 傳承者를 만난 일이 있었다. 親庭은 城邑里인데 松堂에 시집을 때 親庭父母들이 펍 거드름피었다는 것이다. 旌義고을의 體貌로서 어찌 松堂 같은 마을에 딸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강력히 求婚을 하자 許婚은 하면서도 縣監이 타고 다니는 獨輻로 신부를 데려가도록 조건이 붙어졌었고 드디어는 縣監의 獨輻 타고 시집 왔다는 回顧談을 들은 일이 있다. 享樂하면서도 살 수 있었던 건, 분명 한갓 特權이다. 變質的 下降은 했으나마 아직도 이 享樂的 自矜意識은 不知不識間 주민들 새에서 흐르는 듯 싶다. 이번도 조사기간중에 어느날 밤 가게 앞에 40대의 여인들이 썩 나타나더니 소주를 의젓이 사 마시고 히히덕거리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발일을 종일 했었는지 몹씨 피곤했었는데 몸이 풀린다는 얘기도 오가는 것 같았다.

약 250家口에 가게가 13개소 있다. 가게의 상품들은 日用品에서 食品, 酒類까지 어느 가게나 百貨店의 性格을 띠고 있다. 평균 20家口에 가게가 하나이니 다른 마을에 비해 비율이 높다. 이처럼 많은 가게가 유지되는 것도 역시 주민들의 逸樂的 消費性向을 말해 주는 것일까?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소위 <고망술집>이 동네마다 거의 한군데씩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간단한 식당 한 개가 가게와 이웃해 있을 뿐 酒店은 따로 안 보이지만은 어차피 閑良의 氣質은 아직도 보인다. 質疑紙를 들고 학생들과 다니다 보면 여인들이 將棋, 바둑판에 끼어든 경우를 한두번 목격했다. 술을 마시면 젊은 분들도 대체로 노래에는 名手다.

城邑里民은 自尊意識이 두드러지다고 하지만 다른 마을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그러한지 確言할 길은 없다. 더욱 排他的이라 한다면 혹 고을 주민으로서의 自矜的 態度와의 表裏關係일 것이다. 享樂的이라 하지만 찌든 日常속에서도 生活의 韻致를 찾으려 할 뿐이지 마을 주민들은 다들 그래도 勤勉한 편이다. 勤勉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문제는 舊縣廳所在地 住民들로서의 矜持가 젊은 층에까지 自覺되고 있는가 인데 여기에 그렇다할 自意識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았다. 遺蹟을 고스란히 가꾸는 일 등에도 젊은 指導層이 몇몇한 主見을 갖고 주민들을 이끌어 가려는 意圖가 안 보였다. 그러니 天然記念物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나 팽

나무 몇 그루의 保護에도 자발적 대책이 서 있질 않으며 더구나 1973년에는 中心街에 舊縣廳所在地로서의 한갓 象徵이라 할 수 있는 縣廳入口 正門을 애석하게도 헐어뜨려버렸다. 이 책임을 마을 젊은이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근래 文化財에 대한 愛護思想 鼓吹는 政府에서도 力點을 두고 있지만 그 價値意識과 矜度가 방방곡곡마다 그 주민들의 피속에 흐르도록 하기에는 스스로가 韓國과 韓民族을 내다보는 그 기본자세부터 문제 삼아야 겠음을 필자는 이 마을의 調査에서 再認識되었다.

世代에 따른 價値觀의 混迷는 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판 마을과는 다른 고을의 後裔로서의 品格 같은 게 있을까, 혹 敬老思想이라도 유다를까 해서 유심히 살펴 보았으나 거의 찾아낼 수 없었다. 私設 漢文敎習所 등도 없었다. 城邑長老教會가 60여년전부터 있었어도 全家庭이 신앙하는 경우가 오직 한 세대뿐이라는 사실도 흥미있다 할 것이다. 城邑里住民 特有的의 氣質에서 온 것일까? 長老教會의 布敎活動은 어디서나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지만 41세 이상의 신도수가 고작 男(1), 女(3) 합쳐 4명뿐이니 역시 無意識中에나마 주민들의 意識構造에는 外來思潮에 쉬 물들지 않는 無抵抗不關與의 思考가 바탕에 흘러 온 것이라 느껴졌다.

— 우린 우리들이고 그분들은 그분들이니까 미워할 것도 반가와할 것도 없지요, 그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教會側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대한 물음에 한 古老는 싱겁고도 去頭切尾의 답변이다.

— 固陋한 思考와 習性은 뜯어 고쳐져야지요. 고쳐지지 않은 이상 發展이 없습니다. 몇年만 기다려 보세요.

教會의 송배회 전도사는 열을 올린다. 意識의 改變이란 어차피 難題일 것이다.

城邑里 出身으로서 公職에서 자리가 잡힌 분들을 보면 우선 敎職者가 많아

各級校 校長級이 5, 6명에 이르며 領官級의 軍將校가 6, 7명, 警察幹部가 2, 3명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行政公務員으로서 자리 굳힌 분은 별로 없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인지, 무슨 理由가 있어서인지, 굳이 그 意味를 붙인다면 혹 오랜 세월을 官憲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왔기 때문, 그들의 僞善과 行悖에 혹 심증나서가 아닐까?

제주도내 어느 마을에나 있는 현상이지만, 城邑里에서도 日本에 나가 大成한 분들이 많고 上水道 施設, 鄉校 補修, 學校 備品 등에 지원해 왔다. 電氣 架設 역시 架設費의 大部分을 在日僑胞에 기대고 있었다. 日本 大阪에 城邑里 親睦會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 休會中이지만 城邑里 青年親睦會가 있다는 것이다. 大阪에 있는 康寅成氏를 비롯, 康泰重·洪奉三氏 등은 도내에서도 알려진 富豪들로서 城邑마을 北側에 각각 널따란 橘園을 가졌다. 城邑 2리로 나가는 〈산녘도〉 부근에는 廣闊한 橘園이 整然히 다듬어져 있었다. 하필 住居 이웃의 중요한 農土들이 몇몇 在日里民들이 點據한다는 것은 좀 아쉽다고 말하는 里民도 있었다.

어느 마을이나 그렇지마는 이런 支援은 도민의 意識構造에 미치는 逆機能도 역시 문제라고 어느 青年指導者는 말하고 있었다. 특히 依他하기 쉬운 그 逆機能이 이 마을에서 문제가 되어야 한다면 원래 오랜 동안의 고을이어서 學校, 面事務所, 警察官 派遣所, 郵遞局까지 自動的으로 생겼으므로 이제 한갓 병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만 앉아 있으면 노력하지 않더라도 어찌어찌 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意識이 혹 조장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게 意識層 몇분의 우려였다.

康里長은 금년 7월 이후, 農協의 資金支援에 따라 10명 단위의 養豚作業班을 만들었으며, 장차 4H部員을 통한 養苗業, 成人爲主의 畜產作目班을 기어 이룩하여 성공시킴으로써 더욱 自助, 勤勉하는 마을을 이룩하겠다고 말하면서 금년 3월 창립된 換金作物爲主의 女性作目班은 (1個班 7名内外) 성공한다고 자랑을 덧붙인다.

政府의 貸與穀을 꾸어 먹는 율이 5·16 전까지만 했어도 城邑里民에 의해 表善面의 30%나 차지했었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氣候나 土質로 보아 農穀生産에 不適하다 하더라도 오늘날 억척스런 생활과는 달리, 自尊意識과 風流, 享

樂의性情이 지난날 같았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在日僑胞는 大阪에만 93세대가 사는데 社長級마도 5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역시 地瘠民貧하므로 많이들 건너갔고 성공한 분들이 많아진 것이겠다. 제주도의 여러 마을을 보면 역시 瘠薄한 마을 出身의 渡日率과 成功率이 높다.

城邑里 住民 特有的 意識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제주도민의 意識, 나아가서는 韓國人의 意識을 추출해 내기 힘들 듯 어려운 작업이다. 어차피 序說的인 데 그쳐둘 수밖에 없다.

3. 家屋構造

城邑里 家屋構造의 특징을 찾기 위해 「家屋配置圖」를 戶別 訪問하면서 작성했고 「家屋 지붕 構造 一覽表」를 작성해 보았다.(別紙 一覽表 參照) 이에 근거하여 家垡當 家屋棟數를 통계해 본 결과는 <表 2-2>와 같다. 한 울타리 안에 1家垡라 할 때 家垡數는 216인데 總家屋數는 663棟이다. 따라서 家垡當 家屋棟數는 평균 3.07棟인데 다른 마을의 통계를 낼 겨를이 없어 的確한 對比를 할 수 없음이 유감이나 다른 제주도의 많은 마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한 집안에 들어서면 안채, 바깥채 2棟으로 이루어진 집이 많고 소위 <목커리>가 가로 세워진 집안이 더러 있을 정도의 構造가 제주도 촌락의 一般的 家屋構造라고 한다면 城邑里의 경우는 한 울타리 안에 4棟 이상의 家屋을 가진 집안이 비교적 많다는 추측이다.

<表 2-2> 家垡當 家屋棟數

							城邑1里
家垡當棟數	1棟	2棟	3棟	4棟	5棟	6棟	計
家垡數	28	77	71	33	6	1	216
家屋棟數	28	254	213	132	30	6	663
棟數別%	4.2	38.3	32.1	19.9	4.5	0.9	100

- 資料: 現地調査
- 1973年 7月末 現在

이 假說이 옳다면 이 현상은 무슨 때문에서일까? 말할 것도 없이 縣廳所在地로서의 威品을 지키기 위한 家屋構造일 것이다. 世宗 5년 縣廳所在地로서 城邑이 발탁되었을 당시의 家屋數나 家口數·人口數를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지금 7대 이상 城邑에서 살고 있는 姓氏가 없는 것을 보아도 住民의 移動이 심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理由는 行政要地였으므로 官憲의 轉入出이 빈번했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世宗初 당시 주민이 원래 얼마였던 縣廳所在地로 정해진 다음, 많이들 移住해 왔을 것이며 지금의 聚落形成도 대부분이 도읍한 다음의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 當時의 建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垞地와 家屋의 배치나 울타리 안의 家屋棟數 등은 상당히 改變되어 가면서도 그 원들의 姿勢만은 은근히 傳承되었으리라 想到할 수 있지 않을까?

〈表 2-3〉 家垞單位의 家屋 지붕 構造

城邑 1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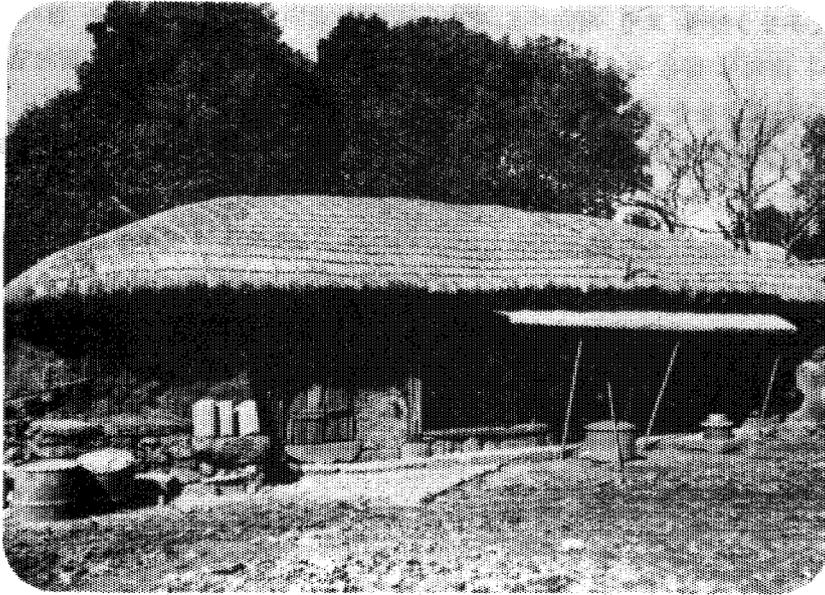
지붕構造	초 가	합 석	스레트	초가·스레트 혼 용	초가·합석 혼 용	기 와	計
家垞數	168	3	7	30	8	-	216
百分率	77.8	1.4	3.2	13.9	3.7	0	100%

○ 資料 : 現地調査

○ 1973年 7月末 現在

근래 새마을 운동의 물결에 타서 지붕 改良도 꽤 이뤄져 가고 있다. 한 울타리안을 한 家垞로 볼 때 家垞內 家屋들의 지붕 구조는 〈表 2-3〉과 같다. 한 울타리 안에 온통 草家建物만이 있는 家垞가 77.8%에 머물고 있지만 表善面 事務所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지붕 改良이 面內에서도 만 마을에 비하여 훨씬 덜 이뤄진 편이라 한다. 그런데 지붕 改良이 눈에 띄게 加速化하는 듯 보이는 것은 마을 中心地의 길 兩側 집들 중에 改良率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마을에 비한 家屋의 特色은 露天便所가 적다는 사실이다. 便所마다 거의 草家지붕으로 端正히 이어 놓았다. 중간에 개량되었다고는 하지만 露天便所 一掃策 이전부터 唯獨 이 마을에는 지붕을 갖춘 변소가 많은 편이니, (제주도 一圓하여 마을마다 露天便所 改良率을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으므로 아직 確



趙一訓家屋(안거리·重要民俗資料 第68號)

할 길은 없으나) 이것도 舊都邑民으로서의 矜持의 한갓 發現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高平五氏 家屋을 보면 이해가 가겠지마는 <목커리>와 안채 사이에 이쁘게 지붕을 갖춘 便所가 같은 울타리 안에 前後하여 두 채나 있다. 앞 변소는 아들이 쓰고 뒷 변소는 아버지가 쓴다. 제주도의 일반적인 풍습이지만 아들이 長成하여 결혼을 하고 살림하게 되면 아버지의 世帶는 바깥채로 나가고 안채는 長子夫婦에게 移讓하는 게 常例인데 이 집도 그런 경우다. 안·바깥채에 父·子 夫婦가 살면서는 변소 역시 2개소를 마련하는 예는 제주도의 경우 가끔 있는 일이다. 돼지 飼育에 따른 收益도 물론이지만 農事를 짓는데 필요한 堆肥源으로서 변소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高氏의 경우를 보면 父世帶 所有의 便所가 아들이 사는 안채 터알 後側에 위치해 있으니 말하자면 철저한 자식 위주 내지 優待의 斷面을 엿볼 수 있다.

셋째 城邑里 住宅의 特異性은 家屋의 거의가 南向이다. 南向이 大部分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山間地帶이기 때문 추위를 막기 위해서다. 물론 한 家

堡(우장)안에 보면 南向外로 東向, 西向과 北向의 家屋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南向이 많은 것은 사실이요, 특히 主家屋(안채·안거처)은 南向일 수 있도록 家屋들을 배치해 놓았다.

豫備調査를 실시하는 6월중순, 城邑里에서 家屋을 전공하는 文化財管理局 金鴻植氏를 만났다. 金鴻植氏는 몇 개월전부터 제주도의 각 촌락을 돌아다니면서 그 構造를 철저히 조사하는 도중이었다. 金鴻植氏의 見解로는 역시 5百年間의 縣廳所在地였기 때문, 딴 마을에 비해 골목이나 오래가 規模있고 시원 시원하게 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한다. 金氏의 이야기에 따라 유심히 살펴 보니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았다. 小路길이라도 너무 웅장하지 않고 골목이나 오래가 지나치게 좁지 않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점은 城邑里 家屋構造 내지 聚落形成의 넷째 특징이 된다 할 것이다.

高平五氏 家屋 안채 부엌 입구에는 부엌 바닥에 <부섭>이 달려 있다. 부엌간 흙바닥 부뚜막이 시작되기 전의 入口側에 70cm 평방쯤으로 가장자리에 15cm쯤 높이로 3cm쯤 나비의 돌이 심겨져 있다. 이 시설은 늦가을서부터 겨



高平五家屋(이문> 重要民俗資料 第69號)



울철에 들에 일하러 나갔다 온 다음 불을 지퍼서 쪼이는 곳이다. 南濟州郡 山間部落에는 띄엄띄엄 이런 시설이 있었었다. 지금은 가끔 그 殘痕이 보일 뿐인데 大靜쪽에서는 <봉덕>이라 하고 旌義附近에서는 <부섭>이라 한다. 이 <부섭> 혹은 <봉덕>은 高平五氏 家屋의 경우처럼 부엌간 부뚜막 옆에 설치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마룻방 뒷뜰 천에 마련하기도 한다. 城邑에서는 아예 마룻방에 설치하는 일은 없었다 한다.

高平五氏 家屋의 바깥채는 예전부터 官吏의 宿所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面事務所나 警察官署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寄宿處로 이용되었었다 한다. 建物이 規模있을 뿐더러 터알이 널따랗고 모든 官署들이 이 집과 近距離에 있었다는 利點에서였을 것이다. 더구나 이 집 大門을 나서면 客舍에서 南門으로 直行하는 <노드리> 길이며 그 大門 바로 길 건너쪽에는 <南門통>이 있다. 이제는 단지 패어져 있을 뿐 물은 안 고여 있으나, 傳承에 따르면 이 <南門통>은 一級飲料水였어서 원님이나 官吏들만이 專用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민들은 일절 마실 수 없었던 貴族들의 飲料水 供給源이었다는 것이다.

家屋構造의 표본으로서 이 高平五氏 家屋(城邑里 809番地) 外로 또한 趙一訓氏 家屋(城邑里 872番地)를 擇한 것은 이 두 家屋이 比較的 古形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터알이 넓고 草家 建物 各 5棟이 家垡 안에 適宜 按配되었을 뿐더러 舊縣廳 당시에 前者는 官吏 宿所로, 後者는 客舍에 接하고 있다는 점이다. 趙一訓氏 家屋은 지금 國民學校(元 客舍)와 울타리로 이어진 집인데 <노드리> 길의 始發이요 그 西側 돌담에는 <參奉 李奇善 恤窮碑>가 을씨년스럽게 박혀져 있다.

연자매를 설명할 때 言及했었지만, 趙一訓氏 家屋에는 그 大門으로 들어서서 西側에 그 家庭專有의 연자매가 있었다. 보기 드문 事例다. 20여년전에 헐어버렸고 이제는 그 방앗돌도 大門 入口에 제멋대로 쪼개어진 채 홀어져 있다. 城邑里에서 맨처음 區長職을 지냈었다는 趙一訓氏의 祖父가 마련했었다는데 꽤 富豪였었다 하며 그 威勢나 個性이 뚜렷했었다는 것이다. 於此彼 興味 있는 일이다.

4. 人文的 環境

城邑里는 前述했지만 지금 조사대상으로 하는 城邑 1里와 城邑 1里에서 北으로 3.5 km 떨어진 城邑 2里로 나누어진다. 城邑 2里는 50家口の 九龍洞(구렁뚱)과 安保洞(城邑主南團地)으로 이뤄진다.

城邑 1里의 人文的 環境은 <略史>·<施設·遺物>·<傳承文化> 등에서 이미 퍽퍽말해 왔다. 여기에서는 教育·文化施設을 概觀하는 데 그칠까 한다.

教育機關으로서는 6學級 278명을 수용하고 있는 城邑國民學校와 城邑長老教會에서 經營하는 城邑教會나사렛學院이 있다. 城邑國民學校의 《1973學年度 教育計劃》을 보면 學校의 沿革은 1937年 8月 21日 城邑尋常小學校로 設立認可된 게 그 출발이라고 정리되어 있으나, 이 學校의 實際 沿革은 훨씬 그 이전으로 치올라간다. 城邑尋常小學校 이전에 城邑普通學校가 있었고 그 前身으로 義成私立學校가 있었다.

1935年度 城邑普通學校 在學生數는 252人이었는데 城邑里(82)·加時里(42)를 비롯하여 新山里(24)·表善里(22)·三達里(22)·新豐里(19)·下川里(14)·細花里(11)·蘭山里(8)·新川里(7)·兎山里(1) 등에 이르렀었다. (表 2-4 參照)

<表 2-4> 城邑里 周邊 마을의 1935年度 戶數 및 城邑普通學校 在學生數

里 名	戶 數	在學生數	里 名	戶 數	在學生數
城邑里	372	82	表善里	320	22
加時里	323	42	細花里	188	11
新豐里	170	19	免山里	151	1
三達里	170	22	下川里	150	14
新山里	250	24	新川里	140	7
蘭山里	200	8	計	2,434	252

資料：城邑里 宋之俊氏 提供

그 때 在學生들은 물론 지금처럼 義務教育일 수가 없었고 각 마을에서 里民의 合議에 따라 발탁되었으며 다음에서 학생 1인당 年 150兩과 쌀 小斗 72斗씩 獎學金條로 모아 주었다고 宋之俊翁은 述懷한다. 蘭山里에서는 어떤 어린이가 部落代表로 추천되었으나 그 부친이 극력 반대하여 입학하지 않았었다는 逸話도 있다 한다. 1935년 당시의 학생 분포로 보아 表善面內는 물론이요, 城邑과 이웃해 있는 많은 마을에서 재학해 있었음을 보면 과연 城邑里가 行政的 中心地였음은 물론이요, 教育·文化的으로도 斷然 그 一帶의 放射中心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義成私立學校 當時에는 始興에서 法還까지 旌義縣管內의 각 마을에서 몰려들었고 역시 굉장한 獎學金의 受惠 밑에 勉學했었으니 在學生의 自矜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旌義(城邑) 普通學校는 1909년에 설치되었었으니 그 前年에 세워진 大靜普通學校 및 그 前前年(1907)에 出帆한 濟州普通學校(現 濟州北校)와 더불어 初等教育機關으로는 단 3個校中의 하나였던 것이다.(當時 中等教育機關으로는 現 濟州農高校의 前身인 私立義信學校와 現 晨星女中高校의 前身인 晨星女學校가 있었을 뿐이었다.)

서기 1914년 三郡分立制度가 폐지됨에 따라 英化롭던 郡(縣)所在地로서의 城邑은 1個 面所在地로 轉落되었는가 하면 1934년 面所在地마저 表善리로 옮겨짐에 따라 普通學校도 表善으로 移置되었다. 城邑1·2里를 學區로 하는 城邑國民學校는 도내의 어느 國民學校와 다름이 없이 凡常하다. 城邑的 環境, 특히 舊都邑의 特性中 強點을 살려 自尊意識을 길러낸다는 등의 自主的 教育方案이 設定, 運營하려는 의도가 뚜렷하지도 않다. 참고로 1973학년도 城邑國民學校의 《教育計劃》에 근거하여 兒童의 本籍地, 教具 施設, 兒童의 保護者 職業, 學歷, 宗教, 文化施設 등의 통계를 다음에 제시한다.(〈表3-2... 7) 參照)

兒童의 本籍地는 96%가 里內(혹은 面內)이고 面外가 단 3명, 他道가 불과 8명이다. 他道는 말할 것 없고 他面, 他郡에서의 移入이 극히 미미함을 이내 파악할 수 있다. 教具施設을 보면 映寫機·幻燈機·錄音器 등이 갖추어졌고 放送室이 마련되었으며 리듬악기가 있다. 마을마다 학교마다 그렇지만은 60년대 이래 在日僑胞와의 빈번해진 交流에 따라 그 支援에 따른 것이다. 保護

〈表 3 - 2〉 城邑國民學校 兒童의 本籍地

性別	本籍	他 道	濟州市	南 郡	北 郡	表善面	計
	男	5	-	1	-	126	132
女	3	1	-	1	141	146	
計	8	1	1	1	267	278	

資料：城邑國民學校《1973學年度 教育計劃》

〈表 3 - 3〉 城邑國民學校 教具 施設

種別	放送室	풍금	錄音器	映寫機	카메라	投影機	환등기	벽시계	테이블	철의자	케비넷	식탁	천막	책걸상	교탁	교단	리듬악기	실험기구
數量	1	2	1	1	1	1	1	2	8	10	7	1	1	150	6	6	10	15

資料：城邑國民學校《1973學年度 教育計劃》

〈表 3 - 4〉 城邑國民學校 兒童保護者 職業

區分	農 業	商 業	工 業	半農半商	公務員	畜 産	勞 動
人 員	148	8	-	3	3	89	12

資料：城邑國民學校《1973學年度 教育計劃》

〈表 3 - 5〉 城邑國民學校 保護者 學歷

區分	大 卒	高 卒	中 卒	國 卒	漢 解	無 學
人 員	5	18	76	132	30	19

資料：城邑國民學校《1973學年度 教育計劃》

〈表 3 - 6〉 城邑國民學校 保護者 宗教

區分	基 督 教	佛 教	천주교	其 他
人 員	7	33	-	141

資料：城邑國民學校《1973學年度 教育計劃》

〈表 3-7〉 城邑國民學校 保護者의 文化施設

라 디 오	전 축	형 광 등	시 계	자 전 거	신 문	잡 지
56	2	5	44	2	17	15

資料 : 城邑國民學校 《1973 學年度 教育計劃》

者 職業은 〈表 2-14〉에서 볼 職業別 人口와 別차이 없다. 다만 畜產業이 89명으로 나타난 것은 城邑2里의 主畜團地의 학부형을 포함했고 半農半畜인 경우, 〈表 2-14〉에서는 農業에 포함시켰는데 비해 主畜副農인 학부형을 畜產業으로 처리한데서 온 數値인 줄 안다. 保護者의 學歷, 文化施設은 一部 前述했지만 城邑里의 社會構造를 理解하는 데 傍證이 될 것이다.

國民學校 外의 教育機關으로는 城邑教會나사렛學院이 있다. 예수교長老會 城邑教會 안에 금년(1973) 5월 私設된 夜間中學課程으로서 송배희 전도사 외 5명의 젊은 敎人들이 헌신적으로 敎科를 담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中學校를 못하고 방황하는 國民校 出身들에게 中學校 課程을 1년 반에 마칠 수 있도록 마련된 학원이다. 男女 23명이 在學하고 있는 이 學院의 教育目標은 高等學校 입학을 할 수 있는 실력의 培養과 檢定考試 합격을 표방하고 있다. 敎材는 再建學校敎本 및 서울講義錄을 택하고 있으며 물론 城邑教會를 敎사로 쓰고 있는데 젊은 敎人들의 헌신적 봉사에 비해 학생수가 얼마 안된 게 아쉽게 느껴졌다.

〈表 2-5〉 文 化 施 設

城邑1里

種類 項目	城邑1里									
	라디오	時 計	재봉틀	新 聞	螢光燈	雜 誌	오 토 바 이	電 蓄	텔 레 비 전	錄音器
保有數	177	152	109	38	30	22	3	5	2	5
城邑1里 251家口 에 대한 %	70.8	60.6	43.4	15.1	12.0	8.8	1.2	2.0	0.8	2.0

○ 資料 : 現地調査

○ 1973年 7月末 現在

文化施設로서는 特異한 점을 볼 수 없었다. 제주도 의 많은 마을에 비해 生活

程度가 평범하다기보다 오히려 좀 貧寒한 마을로서는 凡常한 편이다. <表 2-5>를 보면 文化施設 全貌를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디오·時計·재봉틀·新聞·雜誌·오토바이·錄音器의 경우 全家口數가 251 가구임을 想起해 볼 때, 특히 라디오·時計·재봉틀의 保有率은 靚은 셈이다.

電化事業은 한참 進行中에 있었다. 在日僑胞의 經濟的 支援에 힘입어 架設費 確保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며 韓國電力과의 契約하에 설제도 이미 마쳐진 계제였다. 아직 電氣架設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螢光燈과 電蓄, 텔레비전이 마련되었을까? 이는 充電과 自家發電에 의한 것이었다. 充電에 의한 螢光燈 시설은 城邑出身이면서 城邑國民學校 教師로 있는 洪奉文氏의 아이디어로서 螢光燈(약 400원)과 아울러 밧데리(약 800원)를 갖춰 놓으면 1개월마다 充電料(200원)가 소요되는 形편이었다. 1971년부터 城邑里에 이 充電螢光燈을 가설하기 시작하여 이제 30가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웃마을인 加時里·松堂里 등에도 이를 본떠서 가설되어 간다는 것이다.

新聞은 地方紙로서 濟州·濟南新聞을 비롯하여 中央紙로는 朝鮮·서울·韓國 등이다. 病院·藥局이 없으며 電話가 없다. 表善 城邑間 道路鋪裝과 아울러 電氣架設, 行政電話 設置, 醫療機關 誘致 등이 里民 共通의 當面所願이었다.

5. 城邑 2里 概觀

城邑 2里 九龍洞은 城邑 1里에서 北北西쪽으로 약 3km쯤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다. 1里와 九龍洞 사이는 평퍼짐한 平野로서 牧野地이거나 띠밭이다. 一望無際로 탁 트인 벌판이다. 이 사이의 往來는 물론 徒步요 가끔 耕耘機가 왕래하는데 이 耕耘機를 타 다니기도 한다. 主畜園地(安保洞)는 九龍洞 東側에 위치해 있는데 1里와의 거리는 역시 3km 내외다. 九龍洞과 主畜園地의 어린이는 徒步로 1里에 있는 城邑國民學校에 통학한다. 3km의 거리를 통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역시 山間地帶라 酷寒과 暴雪일 때에는 그 通學이 힘겨울 때가 많다.

九龍洞은 22家口로 이루어졌다. 金氏가 7家口, 朴氏가 5家口, 李氏가 2家口이며 康·梁·鄭·趙·洪·姜·安·文氏 각각 1家口씩이다. 九龍洞은 元

來 現村落의 동쪽 <할미동산>에 聚落되어 있었다 한다. 이 마을을 <할미가름>이라 했고 거기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기와집의 富豪 洪長者는 많은 머슴들을 거느렸었다 한다. 그 머슴들 가운데 逆賊이 있어 그 집안은 날이 갈수록 家勢가 기울기만 했고 마을에도 凶事만이 잦아졌다.

더구나 이 <할미가름> 住民들에게는 不可抗力의 不運이 닥쳐 왔다. 어찌된 영문인지 가정마다 아무리 정성을 다했어도 得男할 수 없는 致命的 厄運이었다. 得男不可의 이 厄運을 둘러싸고 무슨 까닭이네 무슨 탓이네 말들이 많았다. 豪雨일 경우에는 洪水가 이 <할미가름>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므로 幸運이 씻기어서 家家戶戶마다 得男하기 힘들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洞民들 새에서 移村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무렵, 富豪에 항거하는 奴僕들의 난동이 겹쳐져서 移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다. 마을을 온통 옮긴다는 일은 그 決意나 實行에 있어 大作業이었으나 村民들은 이를 악물고 지금의 <구렁팻>(九龍洞)으로 移村作業을 감행했다. 이상은 九龍洞 形成 緣由의 梗概다.

그러나 이리하여 九龍洞으로 온통 移村한 다음에도 무슨 邪氣가 엿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조바심은 아주 가시질 않았다. 風水的으로 보아 이 九龍洞 南側 入口의 돌동산인 <주중머치>가 보인다는 것은 이 九龍洞 주민들에게 양화가 미치리라는 說이 떠돌았다. 이미 <할미가름>에서 살 때 洪水가 橫流하므로 得男難이란 厄運을 겪었던 주민들이라 심각히들 대책을 협의했다. 防邪塔을 세워 <주중머치>가 안 보이도록 措處함이 上策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防邪塔이 이 마을 南側 入口에 세워진 <가매기동산>이다.

九龍洞이 설촌된 것은 지금부터 72년전이라 한다. 古老들에 따르면 九龍洞이 생기기 이전, <할미동산>의 設村은 城邑 1리보다 오래다고들 하지만 立證할 길은 없다. <할미김침>이라는 金氏는 10대를 살고 있으며 다음은 6대째의 梁氏 程度다. 四三事件 當時에는 完全 疎開를 하여 城邑 1리로 避難했었다 한다. 行政區域은 주옥 城邑 1리와 포괄되어 城邑리로 묶이었는데 5·16後 분리되었는데 四三事件前에는 이 九龍洞 주민만도 50家戶에 이르렀었는데 疎開했던 후 復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제는 半減되었다는 것이다.

연자매는 3개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뜯기었고 1리의 <안할망>에서 堂神을 모셔 와서 <당침>이 이뤄졌고 부인들의 유일한 신앙대상이 되어 있다. 城

邑國民學校에 통학하는 어린이수는 약 30명인데 徒歩로 60분 가까운 거리를 왕복한다. 中學校에 1명, 高等學校에 2명이 재학한다. 城邑教會에 單 1명(男)이 나가며, 靈佛寺에 4명(女)이 다닌다.

원래의 <활미가름>이나 <구렁팠>은 광활한 牧場이었다. 맨처음 이 <활미가름>에 入住하기 시작한 연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느 山間部落의 形成過程이나 비슷했을 것이다. 개간하여 몇 해 동안은 땅이 기름져서 豐作이 약속되었으며 牧畜을 겸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 移住해 왔었을 것이다. 지금 이 九龍洞 22가구 역시 거의 모든 家口들이 畜産을 兼業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소가 약 100頭, 말이 약 10頭 있다. 비단 九龍洞으로 移住하기는 했지만 <활미가름>은 바로 九龍洞과 이웃해 있으므로 주민들의 소중한 田地로서 절실하게 이용되고 있다. 곧 이 <활미가름>은 그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데 그 地名 속에는 예전의 住居地로서의 殘痕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돛우영~돼지를 기르던 터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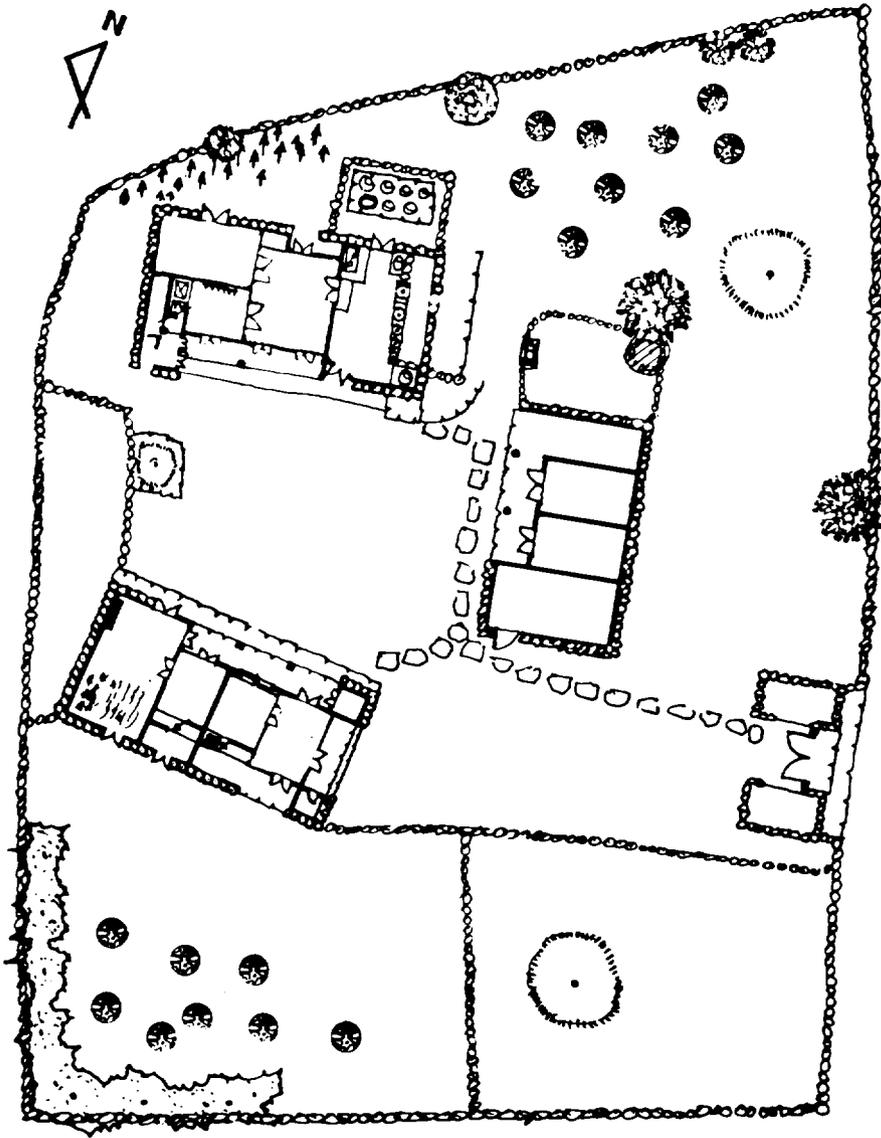
감낭우영~감나무가 자라던 터알.

이문선밭~대문이 섰던 밭.

선호방집터~玄戶房 집터.

불끈터~예전 불이 났을 때 불을 켜던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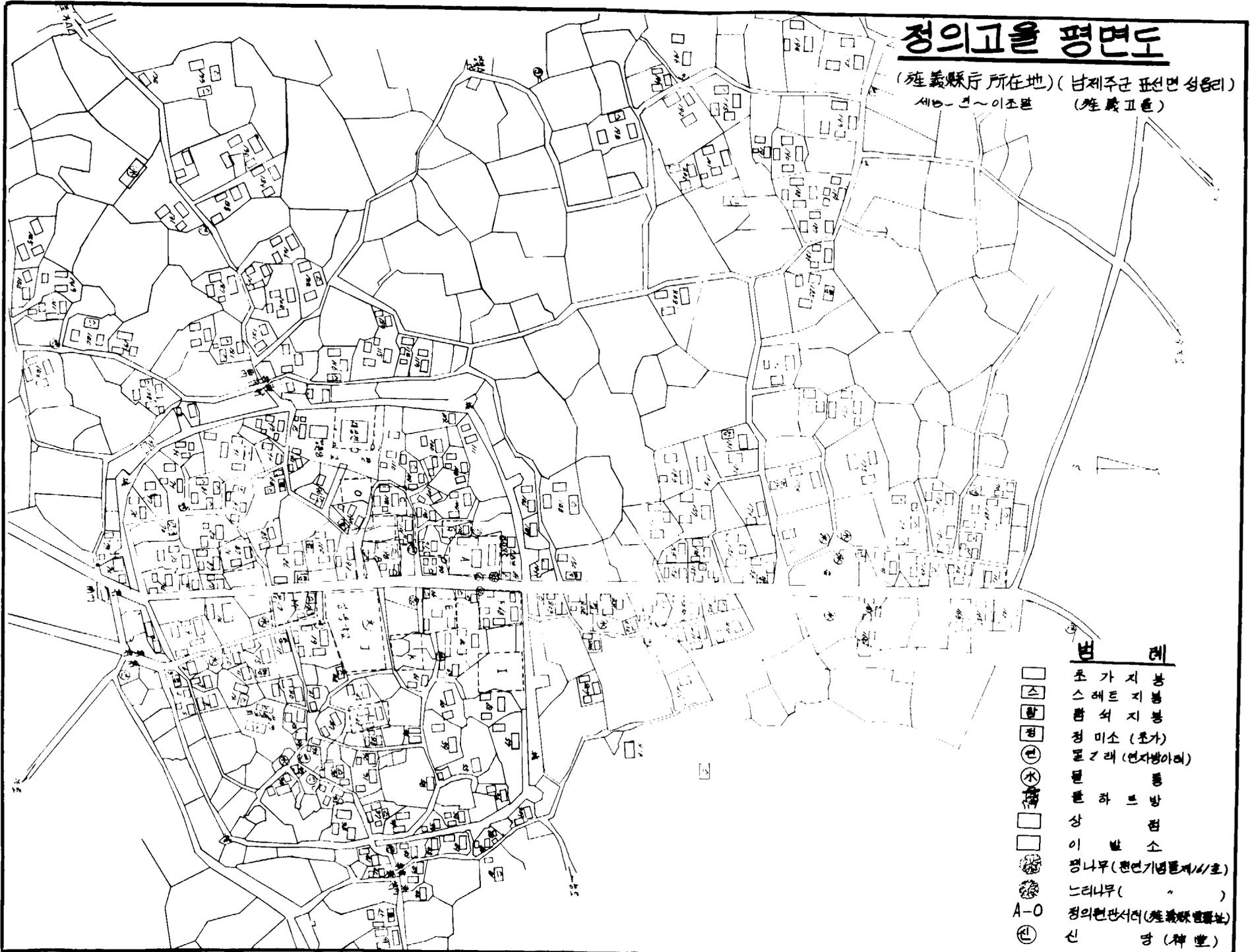
산생이터~산새들이 많이 불러들던 터.



高平五家屋(重要民俗資料 第69號)平面圖
(金鴻植:「民俗村指定保存對象地域調查報告書」에서)

정의고을 평면도

(旌義縣庁所在地)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서남-동~이조문 (旌義古邑)



- | 범례 | |
|-----|-----------------|
| □ | 조가 지붕 |
| 스 | 스래트 지붕 |
| 합 | 합석 지붕 |
| 평 | 청미소 (조가) |
| ① | 포구래 (전자방아대) |
| ② | 물통 |
| ③ | 물라트방 |
| □ | 상점 |
| □ | 이발소 |
| ④ | 평나무 (현연기념물제11호) |
| ⑤ | 느리나무 (") |
| A-O | 정의현관서터 (旌義縣署遺址) |
| ⑥ | 신당 (神堂) |